



코스피 2459.82 (+1.28)	코스닥 850.29 (-12.65)
금리 (연대) 2.29 (-0.03)	환율 (원/달러) 1077.60 (+3.80) (16일)



[산업]
용산시대 여는 LS
에스코 등 합류
지주 3社 결집
04

관세청 “해외직구품 되팔면 밀수”... 네티즌 발칵

중고거래 둔갑 되팔이족 급증
“계도기간 지나면 형사처벌”
직구족들, 靑 청원 등 시골



인천본부세관 특수물류센터에서 관세자들이 지난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때 국내 구매자들이 구입한 물품 통관작업을 하고 있다. 국내 해외직구시장의 규모는 2조원대를 돌파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해외직구족의 ‘비과세 직구품 중고거래’에 직격탄을 때렸다. 중고거래로 둔갑한 ‘되팔이족’이 늘자, 당국은 지난달 ‘관세없는 직구품의 국내 거래 금지’를 계도하고 ‘관세법상 밀수입죄·관세포탈죄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엄포를 냈다. 이에 “중고거래도 안 되냐”는 직구족들의 불만은 곧 ‘청와대 청원’에 이르렀다. 반면 업계 전문가는 ‘비과세 직구품 중고거래’는 관세포탈·밀수입죄 성립이 충분하다고 교통정리에 나섰다.

◆해외직구품 중고거래, 밀수?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3월 현재 해외직구의 국내 시장규모는 2조 원대를 훌쩍 넘었다. 국내로

유입된 해외직구 상품의 물량이 늘어난 만큼, 해외직구품의 중고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 판매처로 반품을 진행하면, 복잡한 절차와 더불어 최소 10일이 넘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세관은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안 내도 되지만 목적이 자가사용으로 한정돼 있어 ‘한 번’이라도 되팔 때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지난달 16일 주요 대형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관세 당국의 계도작업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해외직구 구매가보다 높게 파는 게 문제지, 왜 애꿎은 직구족만 잡냐”고 탄식했다. 또 다른 시민은 “비과세 해외직구 물건을 쓰지 않을 거라면 누구한테 주거나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직구 물품 중고거래 ‘밀수’로 처벌 말아 줘나?’라는 게시글까지 올랐다. 청원인은 “최근 세관에서 해외 직구한 이후 사이즈가 안 맞는 등의 이유로 중고로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로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밀수입죄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 행위와 수입 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며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미국 200불·기타 국가가 150불 이하로 관세를 면제받았더라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양육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세포탈의 경우에도 해외직구 물품을 사이즈 미스 등의 이유로 되파는 것은 관세법 270조(관세포탈죄) 어느 항에도 해당하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직구품의 중고거래, ‘불법’
이 같은 ‘해외직구 되팔이’ 논란에 조인관세사무소의 변병준 관세사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은 과세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자가소비에 대해서만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자가소비와 다른 상업적 거래형태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사용물품의 면세는 실제 수입되는 물품보다 간소화된 수입절차를 거치면서 세관장 확인 사항 즉 의약품 전자제품 등 일정

기관의 요건을 거쳐야 하는 품목도 예외적으로 자가소비라는 전제로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아무런 승인도 거치지 않은 물품들이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풀리게 되면 이 건 공익적인 측면에서 더 문제되는 거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최근 관세청은 늘어나는 해외직구족들이 국내에서 되팔기를 하지 않고 합법적인 반품절차를 밟도록, 해외직구족들이 물건을 반품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했다.

변 관세사는 “과거에는 수출면장을 일일이 끊어서 반품을 진행하는 과정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반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건을 국제우편으로 배송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한미 맥스선더 훈련, 전투기 이륙

북한이 한·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북측 남북고위급회담 취소사태 파악 분주

北,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난
판문점 선언에 악영향 우려
靑, 관련부처와 신중히 논의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북측이 전격 취소하면서 청와대가 북한의 의도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선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새벽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비난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히자 관계 부처

와 신속히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황이 발생한 다음

안보실 관계자들이 통일·외교·국방 등 관련 부처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히 (대응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로서는 당장 북한이 어떤 이유로 고위급회담 연기를 통보했는지 알아내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북한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스선더 훈련의 규모를 비롯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장 국회에서 강연과 저서 출간 기념 기자회견을 한 것 등이 원인일 수 있는지는 기자들의 물음에도 청와대 측은 일침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북한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설익은 견해를 밝히면 남북 간 자리를 잡아가는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렇듯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태도가 다음 달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향후 비핵화 과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삼바 오늘 감리위 대심제 금감원, 스모킹 건 내놓나

(결정적 증거)

결전의 날이 왔다. 17일 대심제(對審制)로 열리는 임시 감리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와 분식회계 혐의를 제기한 금융감독원이 여러 쟁점을 놓고 다툰다.

가장 큰 관심사는 금감원이 확보했다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다. 스모킹 건의 실체에 따라 이번 사안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삼성바이오 물론이고 아직 감리위원회에도 스모킹 건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삼성바이오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책임 있는 당국의 결정을 기다려줘야 된다고 본다”며 “어떤 경우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중심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는 감리위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6월 7일 증선위에는 삼성바이오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는지 여부다. 삼성바이오는 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장 직전인 2015년 말에 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반영된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계업계에서는 일단 스모킹 건이 무엇인 지 공개되어야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감리위에 앞서 전일 홈페이지를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수령한 ‘조치사건통지서’에는 회계처리 규정 위반의 구체적인 근거 및 사실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한 것도 스모킹 건을 알려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i@

‘용산 시대’ 여는 LS... 예스코 등 합류, 지주 3社 결집

계열사 연내 LS용산타워로 이전
15년 만에 계열사 한 곳에 모여
3개사 중심 지배구조 개편 예상

LS그룹이 15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지배구조 개편을 빠르게 진행한 LS그룹은 (주)LS와 예스코홀딩스에 대한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고 거점을 LS용산타워로 이전한다.

LS그룹은 용산을 새로운 중심점 삼아 지주사 역할을 하는 주요 3개사를 중심으로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LS그룹에 따르면 오는 9월 그룹 주력 계열사 지주사인 (주)LS를 시작으로 도시가스 사업부문 지주사인 예스코홀딩스, 에너지사업부문 지주사 격인 E1 등 주요 3개사와 그 외 계열사들이 연내 LS용산타워로 이전한다.

LS니코동제련과 LS메탈도 기존 건물



구자열 LS그룹 회장 /연합뉴스

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대로 LS용산타워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03년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지 15년 만에 그룹 계열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LS용산타워. /LS그룹

LS용산타워(옛 국제센터)는 지하 4층, 지상 28층 규모로 국제상사(현 LS네트웍스)가 2006년 E1에 인수되면서 LS용산타워로 이름을 바꿨다.

LS그룹의 거점은 2008년 완공한 경기

안양 사옥(LS전선·LS산전·LS엠티콘)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주)LS·E1·LS니코동제련), 트레이트타워(LS메탈), LS용산타워(LS네트웍스) 등이었다.

LS용산타워에 입주한 삼일회계법인이 오는 6월 계약을 만료하고, 아모레퍼시픽 용산 신사옥으로 이전을 결정해 공실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LS그룹은 이곳으로의 거점 이전을 결정했다.

입지는 강남에 뒤지지 않는 데다 임대료면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경영 판단 속에 흩어져 있던 계열사를 한 곳에 모아 시너지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전이 완료되면 구자열 LS그룹 회장도 용산으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LS그룹 관계자는 “LS용산타워로 이전은 각사 일정에 맞출 예정으로 연내에는 (주)LS, E1, 예스코홀딩스 등의 입주를 완료 할 것”이라며 “다만 LS그룹의 제조거점인 안양 본사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LS그룹의 용산 거점 이전

으로 3개사 지주사 체제로의 개편도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LS그룹은 지난 3월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예스코를 물적분할해 지주회사인 ‘예스코홀딩스’와 ‘예스코’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주)LS와 예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복수 지주사 체제가 됐다.

LS그룹에서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인 E1과 LS네트웍스 등 11개 업체만 남았다.

향후 E1도 지주사 전환을 거쳐 (주)LS-예스코홀딩스-E1의 3개사 지주사 체제로 지배구조 개편이 예상된다.

LS그룹 고위 관계자는 “(주)LS와 예스코홀딩스에 대한 지주사 체제는 내부 거래 비율이 높다거나 오너의 지분률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빠르게 진행됐지만 E1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연내에는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삼성전자가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두바이의 JW 마르퀴스 호텔 69층에 위치한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중동 지역 최초로 2018년형 QLED TV 출시 행사를 열었다. 120여명의 현지 주요 거래선과 미디어가 참석한 가운데, 중동 현지인들이 보통 손님을 맞이하는 마즐리스 공간에서 참석자들이 삼성 QLED TV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QLED TV, 중동 공략 박차

삼성전자가 중동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두바이에서 ‘Q 하우스 이벤트’를 열고, 중동 지역 최초로 2018년형 QLED TV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20여명의 현지 주요 거래선과 미디어가 참석한 가운데, 두바이의 JW 마르퀴스 호텔 69층에 위치한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진행됐다.

일반적인 제품 프로모터가 아닌 부모와 3명의 자녀로 구성된 모델들이 방문객을 응접하는 공간인 마즐리스, 거실, 공부방, 침실 등 펜트하우스 곳곳에 등장해 실생활 속에서 2018년형 QLED TV를 사용하는 모습을 채지 있게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실생활 속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QLED TV의 성능과 디자인에 대해 호평했다.

먼저 중동 현지인들이 보통 손님을 맞이하는 마즐리스 공간에서는 삼성 QLED TV의 우수한 화질 기술력이 소개됐다.

‘컬러볼륨 100%’와 뛰어난 명암비, 최고의 HDR 화질 구현을 보여 주기 위해 커튼을 열어 햇빛이 쏟아지는 환경에서도 영상 본연의 풍부한 색감을 그대로 표현해 내는 QLED TV의 모습을 연출했다.

거실에서는 리모컨 하나로 TV와 주변 기기를 한번에 제어하는 ‘삼성 원 리모컨’ 기능과 음성 인식 기능이 소개됐다.

공부방과 침실에서는 TV 화면이 꺼져 있을 때 검은 화면 대신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와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매직스 크린’ 모드와 가늘고 투명한 선 하나에 TV 전원선과 주변기기 선을 모두 통합한 ‘매직케이블’이 중점 소개됐다.

삼성전자 중동총괄장 명성원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그동안 중동 지역 전체 TV 시장 점유율이 금액 기준으로 36%, 65인치 이상이 49%로 1위 자리를 유지해 왔다”며 “올해는 더욱 진화한 2018년형 QLED TV로 프리미엄 TV 브랜드 1위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유통산업의 DT 핵심키워드 ‘개인화된 경험’

(디지털 변화)

SK C&C

AI 기반 유통 DT 서비스 개발중
매장 위한 첫번째 기술 ‘비전AI’

쇼핑물에 들어서자 AI(인공지능)가 방문객의 얼굴을 인식해 나이와 성별, 고객 정보, 감정을 인식한다. 안내로봇의 방문객의 나이에 맞는 인사를 건네고 상품 소개와 간단한 물품을 선보인다. 고객이 특정 상품에 대해 문의하자 로봇이 상품이 있는 곳까지 길을 안내해준다. 골프코너를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신형 드라이버 광고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쌓인 고객의 방문 기록과 구매내역 데이터는 추후 마케팅 자료로도 활용된다.

SK(주) C&C가 구상하는 미래 유통현장의 모습이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상품 구매 후 매장을 떠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선사한다는 게 목표다.

SK(주) C&C 이재현 전략DT 추진팀장은 15일 SK서린빌딩에서 열린 ‘IT 현안 설명회’에서 “유통산업의 디지털 변화(DT·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SK(주) C&C는 자사의 인공지능 플랫폼 ‘에이브릴’과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제트’를 기반으로 국내 유통업체들과 유통 DT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SK(주) C&C 이재현 전략DT 추진팀장이 출입기자 대상 IT 현안설명회에서 SK(주) C&C의 에이브릴·클라우드 제트 기반의 다양한 유통 DT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SK(주) C&C

실제로 글로벌 리테일 시장을 보면 백화점과 마트 등 전통적인 리테일 시장은 2013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DT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시장은 매년 10% 가까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시장이 온라인 쇼핑과 챗봇 등을 활용해 개인별로 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 덕분으로 해석된다.

SK(주) C&C는 DT에 기반한 유통산업 혁신의 분수령이 오프라인 매장의 변화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주) C&C가 제시한 오프라인 매장의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위한 첫번째 기술은 ‘비전 AI’다.

비전 AI는 동영상과 사진으로부터 열

굴을 검출해 성별과 연령 추정은 물론 고객이 누구인지까지 알려준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이벤트·프로모션·상품 추천은 물론 얼굴 인식 결제가 가능해지고 로봇을 통한 매장 안내, 제품 소개, 개인 선호 상품 추천, 외국인 대상 통역 서비스 등 다양한 쇼핑서비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

편의점을 중심으로 떠오른 무인 점포도 주목할 만하다. SK(주) C&C가 그리는 미래 스토어에서는 고객이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고객을 인지해 매장 내에 위치한 안내 로봇이 인사를 건넨다.

이어 고객의 성향에 맞는 쿠폰과 상품 추천 서비스가 제공되며 상품의 인식과 결제도 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진행된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뿐 아니라 매장 내 직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봤다.

SK(주) C&C가 소개한 ‘스텝 어드바이저’는 매장 직원이 궁금한 내용을 자연어로 물어보면 즉시 대답을 해준다.

예컨대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특정 브랜드 중 세일이 가능한 품목을 물을 경우, 매장 직원은 스텝 어드바이저를 통해 오늘의 세일 상품 목록을 문의하면 스텝 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할인이 가장 많이 되는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해당 상품의 위치와 재고 상태를 파악해 알려줘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관리자와 매장 신입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전자 모델들이 트윈워시 세탁기 하단에 위치한 4kg용량의 트롬 미니워시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 세탁용량 늘고 시간은 단축... 트롬 미니워시 신제품 3종

77만9000~87만9000원

LG전자가 트윈워시 하단에 위치한 4kg 용량의 트롬 미니워시 신제품 3종(모델명: F4BC, F4VC, F4WC)을 1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2008년 이후 생산된 15kg 이상 21kg 이하 용량의 트롬 드럼세탁기 및

14kg 용량의 트롬 건조기와 결합해 사용할 수 있다.

신제품 용량은 기존 3.5kg에서 500g을 늘려 수건을 2~3장 더 세탁할 수 있다.

온수를 사용하면 ‘소량세탁’ 코스의 경우 기존 50분대에서 30분대로 세탁 시간이 줄어든다. 제품 좌측엔 액체세제 투입구, 우측엔 유연제 투입구를 각각 탑재해

관리한다.

고객이 ‘소량세탁’이나 ‘면속옷’ 코스를 이용할 경우 30도, 40도, 스팀 60도 등 세탁물에 맞는 물 온도를 설정할 수도 있다.

특히 스팀 60도로 세탁하면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간균, 녹농균 등 옷감에 묻은 세균을 99.9% 제거할 수 있고, 한국의류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인증도 받았다.

또 이 제품은 무선인터넷을 탑재해 고객들이 스마트폰의 스마트싱큐앱으로 집 밖에서도 세탁을 시작하거나 세탁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측은 “10년 무상 보증하는 슬림 인버터 DD 모터를 비롯해 블랙 강화 유리 소재 도어를 탑재해 내구성도 강하다”고 설명했다.

색상은 블랙 스테인리스, 실버 스테인리스, 화이트 등 3종이며 가격은 출하가 기준 77만9000~87만9000원이다. /정은미 기자

“애들은 가라~” 어른들을 위한 넥슨의 야심작 ‘카이저’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3년간 공들인 ‘카이저’ 내달 출시
부·명예·1대1 거래 담은 ‘R등급’
LG와 손잡고 ‘G7 씽큐’에 선택제

넥슨이 R등급(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카이저’를 내달 출시한다. 지난 3년 간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제작한 MMORPG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오리지널 지식재산권(IP)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넥슨은 1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카이저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모바일게임 ‘카이저’를 내달 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게임은 인기 PC게임 ‘리니지2’의 개발을 맡았던 채기병 패스파인더에이치 PD가 주축이 돼 개발한 게임이다. 사전 예약 약 한 달 만에 100만명이 넘는 신청자



박재민 넥슨 모바일사업본부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가 몰렸다.

게임 슬로건은 ‘세상에 없던 R등급 모바일 MMORPG’다. 부, 명예, 권력을 키워도 1대1 개인 거래 등 성인만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의미가 담겼다. R등급은 해외에서 18세 이용가 등

급을 뜻한다.

1대1 아이템 거래 기능은 2000년대 PC 온라인 게임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로 사용된 기술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모바일게임에 도입했다.

채기병 PD는 “카이저에서는 플레이어

들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가는 시장경제를 체험할 수 있다”며 “포화된 MMORPG 시장에서 진정한 MMORPG의 감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에 담아낸 풀3D 그래픽과 길드 간 경합을 펼치는 ‘장원쟁탈전’도 눈에 띈다.

경쟁작으로는 엔씨소프트의 인기작인 MMORPG ‘리니지M’가 꼽힌다.

넥슨 김현욱 실장은 “리니지M은 모바일 MMORPG에 한 획을 그은 게임”이라며 “카이저가 분명한 색을 가지고 있는 만큼 두 게임 모두 공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바란다”고 말했다.

카이저는 오는 18일 출시 예정인 LG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G7 씽큐’에도 탑재된다. 지난 4일부터 넥슨과 LG전자는 서울 용산역과 경기 하남 스타필드 등 전국 50여곳에서 신제품 체험 부스인 ‘LG G7 씽큐 스퀘어’를 공동운영하고 있다.

넥슨 측은 “LG전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카이저를 G7 씽큐에 선택제했다”며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카이저’는 안드로이드 및 iOS 운영체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6월 4일 사전 오픈 서비스를 시작하고 7일 정식 출시에 돌입한다.

넥슨 박재민 모바일사업본부장은 “카이저’가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자체 IP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카이저’를 포함해 장기적으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카이저 공식 홍보모델로 발탁된 배우 유지태가 무대에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유지태는 “완성도 높은 게임성을 앞세운 ‘카이저’의 홍보모델이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버건디·골드 영롱한 색 입은 ‘갤S9·S9+’

삼성전자 신규 색상 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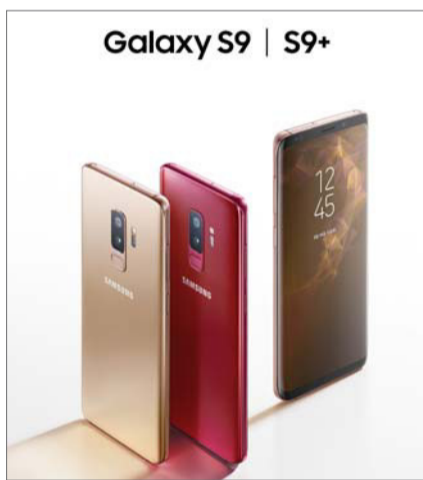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9·S9+(플러스)’ 버건디 레드와 선라이즈 골드 색상을 신규로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버건디 레드는 레드 와인에 빛이 투영되었을 때 느껴지는 깊고 풍부하지만 깨끗한 느낌을 표현한 색상이다. 지난해 ‘갤럭시 S8’을 통해 처음 선보였다.

선라이즈 골드는 태양빛이 공기 중에 부딪히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색상이다. 스마트폰 최초로 적용된 삼성만의 글라스 표면 처리 공법을 적용해 새틴 원단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광택의 느낌을 최상으로 이끌어내 생동감과 차별함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로써 갤럭시 S9·S9+는 미드나잇 블랙, 코랄 블루, 라일락 퍼플에 이어 버건디 레드, 라일즈 골드 색상까지 총 5개의 색상을 갖추게 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9·S9+ 신규 색상 모델 출시를 맞아 17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더욱 새로워진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갤럭시 스튜디오에서는 프리뷰 상태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한 ‘빅스비 비전’과 유명 브랜드 색조 제품으로



가상 메이크업을 해볼 수 있는 ‘AR 메이크업’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배틀 그라운드와 검은 사막 등 인기 게임도 갤럭시 S9·S9+로 더욱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단장된 전국 4000여개의 모바일 특화 체험매장 ‘S-Zone’에서도 갤럭시의 신규 색상을 만나볼 수 있다.

버건디 레드 색상은 국내에서 64GB 모델로 오는 25일 출시되며, 선라이즈 골드 색상은 64GB 모델로 6월 초 출시될 예정이다. 갤럭시 S9의 가격은 95만7000원, 갤럭시 S9+는 105만6000원이다.

/구서훈 기자 yuni2514@

전략 MMO ‘아이언쓰론’ 전세계 동시 출시

넷마블 사전등록 등 이벤트 진행

넷마블은 차세대 전략 MMO(대규모 다중접속) 게임 ‘아이언쓰론’을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 정식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이언쓰론은 건설과 생산, 전투 등 전통적인 전략 요소에 넷마블의 역할수행 게임(RPG) 노하우를 가미한 차세대 전략 MMO 게임이다. 360도 풀3D 그래픽으로 구현된 세계와 다양한 장전 콘텐츠, 독특한 영웅 시스템 등 기존 전략 게임과 차별화된 요소들이 특징이다.

넷마블은 지난 4월 19일 미디어 쇼케이스를 통해 아이언쓰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하고 글로벌 사전등록을 시작했



다. 출시를 앞두고 사전등록 참가자 1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넷마블은 이번 아이언쓰론 글로벌 출시를 맞아 성장 전략 이벤트 등 다양한 인 게임 이벤트와, 사전 등록 보상인 게임 재화 ‘1000골드’, ‘차원의 정복자 투구’, ‘차원의 정복자 대검’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김나인 기자

유럽감성+시원한 주행... 도로 위 ‘작은 거인’



르노삼성 ‘클리오’

민첩한 핸들링·강력한 토크 힘
‘소형차 한계’ 작은 실내 아쉬워



르노 클리오 주행모습.

‘기다림이 길어지면 반가움은 배가 된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올해 야심작으로 선보인 소형 해치백 ‘클리오’를 만난 느낌이다. 클리오는 지난해 4월 서울모터쇼에서 공개된 뒤 젊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출시된 클리오는 기대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었다. 올 1분기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선 11만대 이상 판매된 인기요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5일 강원도 강릉과 정동진 해변 코스에서 만난 르노 클리오는 체구는 작지만 뛰어난 주행성능과 연비 등 다양한 매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 시승 구간은 강릉 골든투립 스키야베이 호텔에서 정동진 하슬라 아트월드를 왕복하는 약 125km 구간에서 진행됐다. 도심·고속 구간은 물론 와이딩 코스를

주행했다.

디자인은 젊은 고객층을 만족시키기 충분했다. 적당한 볼륨감 있는 근육질 몸매와 차량 전체를 타고 흐르는 부드러운 곡선 라인은 단단하고 야무져 보인다. 전면부 중앙에 위치한 다이아몬드형 ‘모장주’ 엠블럼과 라디에이터 그릴, C자형 주간 주행등은 르노의 디자인 DNA를 완벽하게 담았다.

소형차지만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다. 단단한 하체와 서스펜션은 경쾌한 주행감을 물론 방지턱도 부드럽게 넘어갔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내는 토크 힘은 디젤 차량답게 운전 재미를 더해줬다. 클리오에 탑재된 배기량 1461cc 디젤 엔진은 최대 90마력, 22.4kg·m 토크를 내는데 체감 성능은 예상보다 뛰어났다. 한적한 고속도로에

서 주변에 차량이 없는것을 확인한 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자 순식간에 180km를 넘어섰다. 강력한 토크를 자랑하는 데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한 5세대 1.5dCi 엔진이 위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시승은 차량의 다양한 성능을 체험하기 위해 급가속과 급제동을 하는 등 다소 거칠게 주행했다. 그 결과 연비는 L당 14.7km를 기록했다. 클리오의 복합연비는 17.7km/L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날 시승차는 인텐스(INTENS) 트림으로 2320만원이다. 1990만원에 나온 기본형 젠(ZEN)은 국내 들어온 수입차 중 가장 싸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실내공간이다. 성인 남성 5명이 탑승하기엔 다소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

캠핑족 취향저격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현대차 활용성·편의성 높은 캠핑카

현대자동차가 캠핑족의 증가에 따라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의 캠핑카를 새롭게 선보였다.

현대차는 16일 디자인을 변경하고 오토캠핑에 필요한 사양들을 다양하게 적용한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는 지난해 12월 출시한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의 외관에 실내 공간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

카에 ▲베이지 컬러의 고급 가죽 시트 ▲브라운 컬러의 주름식 커튼 ▲주황색 계열의 버밀리언 컬러를 적용한 팝업텐트로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2열과 3열에 적용한 쿠션 시트는 0도부터 90도까지 기울기 조절이 가능한데 수직으로 세워 수납공간을 확장하거나 완전히 평평하게 눕혀 취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실내 공간 활용성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싱크세트 ▲전기레인지 ▲접이식 실내 테이블 등을 기본으로 탑재해 음식물 보관, 조리, 식사를 차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실내

이 외에도 멀티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는 빔프로젝터와 50인치 스크린, 슬라이딩식 모기장 등 편의사양을 대거 적용했다.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의 가격은 510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청년의 꿈이 농업에서 새롭게 피어납니다

꿈을 꾸는 청년들이 농촌으로 모입니다
청년들의 꿈과 함께 농업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농촌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피어나도록
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



농협은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NH

농협

북, 고위급회담 당일 연기 배경은

명분은 '맥스선더 훈련'... 속내는 핵협상 살바싸움

〈한미연합공중훈련〉

통일부, 일방적 연기 통보에 '유감' 평화·변영 위해 조속한 호응 촉구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날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이 남북고위급회담 일지를 우리측에 알리는 직후, 연례적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4월 27일 양 정상 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북한이 한·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16일 오전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소에 미군 F-22 랩터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

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 개요

연례적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 주관: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사령부
- 올해 훈련기간: 5월11일~25일(2주간)
- 공중전력 동원 규모: F-22 스텔스 전투기 8대, F-15K F-16 전투기 등 100여 대의 양국 공군 전력 참가
- 올해는 B-52 장거리폭격기를 동원하지 않음

장거리폭격기 B-52

길이 / 폭 / 높이	48m / 56.4m / 12.4m
최대 속도	마하 0.95
최대 항속거리	1만6,000 km
탑승인원	6명
특징 및 주요 탑재무기	· 미 공군 주력 장거리폭격기 · 핵무탄, 정밀유도폭탄과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 등 · 최대 271 탑재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중으로 (북측에) 통지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판문점 연락채널 등을 통해 남측에 한미연합훈련이나 맥스선더 훈련을 거론한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0시 30분께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맥스선더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맥스선더'(Max Thunder)는 2009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으로 매년 5월 열리는 훈련에는 F-15K와 F-16 등 한미 공군의 전투기 100여 대가 참가해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정 빠듯' 국회 추경... 졸속심사 우려

드루킹 특검법안 여야 이견도

국회가 16일 청년 일자리 및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가 추경과 드루킹 특검법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앞으로 다가온 추경 처리 시점을 두고 일부 반발이 있는 데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의 막을 올렸다. 또 정무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도 일제히 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추경안을 심의했다.

예결위와 상임위의 추경안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18일 본회의 처리'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상임위 예비심사 후 예결위 심사'라는 통상의 절차대로 할 경우 '18일 처리'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을 상임위 예비심사 시한으로 지정한 상태로 예결위 소위 진행 시까지 상임위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상임위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

예결위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18일 오후 9시로 잡혀있는 만큼 그전까지 추경안을 의결해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종합집의를 완료하고 17일 소위를 통해 증·감액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18일 처리에 반대하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고, 다른 당 일각에서도 '졸속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실제 추경안 심사 및 처리가 당초 여야 합의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가 바로 산회하기도 했다. 산업위 소관 부처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지원 등 이번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1조9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돼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추경안 심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야당 간사인 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국회의장이 상임위 예산심의를 박탈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를 거부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추경 관련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아직 회의 일정도 안 잡혔다.

나아가 추경이 특검법과 연계돼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여야는 드루킹 특검의 명칭과 추천 방식, 수사 대상은 합의했으나, 특검 규모나 수사 시기 등 세부사항에서는 계속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수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곡동 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검사 10명 등이 30일(1회 15일 연장가능) 수사하도록 했고, 최순실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20명 등이 70일(1회 30일 연장가능) 수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美 국무부 "북미정상회담 준비는 계속"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영향 없어 합동훈련 도발적 행위 아니 일축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성 사진.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비난하며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번 발표가 현재까지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헤더 나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으로부터 입장 변화를 "동보받은 게 없다"면서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계속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트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 정부 또는 한국 정부로부터 이 훈련을 계속 수행하지 말라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계획을 계속하지 말라는 의사를 내비치는 어떤 것도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게 대한 공중 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2018 맥스선더' 연합공중전투 훈련을 벌여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이트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이번 맥스선더 훈련을 도발 행위로 비난한 데 대해 "그 훈련들은 도발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김정은(위원장)은 이전에 한국과 미국이 합동훈련을 계속할 필

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했다"면서 "우리가 근거로 삼는 것은 김정은이 이전에 미국과 한국이 하는 이러한 합동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훈련들은 우리가 전세계에서 많은 동맹국과 하는 것이고, 수십년간 해온 일들"이라며 "김정은은 우리가 합동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이트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남북고위급회담을 완수하라고 권할 것이냐는 질문에 "장관이 전화를 걸어 현 시점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애걸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나이트 대변인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의 인준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인 6월12일 이전에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한국 대사를 갖길 원한다"면서도 "상원에 물어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北 김계관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리비아식 핵포기·완전폐기 등 상대방 자극하는 망발이라 지적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다는 것을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담화가 미국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제1부상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관리들이 '선핵포기 후 보상' '리비아식 핵포기방식'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완전폐기' 등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며 "핵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리비아를 모델로 한 일괄타결방식이 거론되고 일방적인 북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연합뉴스

고용 트로이카, 제조·건설·서비스 ‘날개없는 추락’

제조업

車-조선업 구조조정 여파

건설

투기 규제로 주택물량 축소

서비스

최저임금 영향 11개월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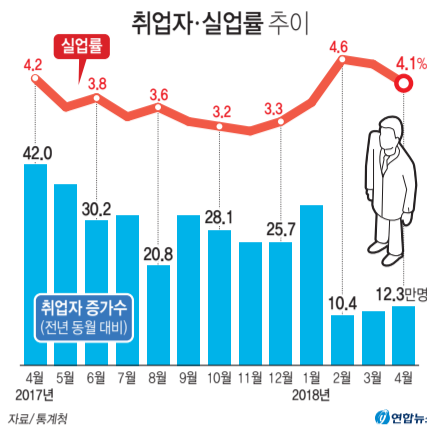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대에 머무르자 그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선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던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무엇보다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 등 서비스업 종사자 감소와 건설업 부진이 겹치며 고용 부진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고용 상황이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령층 증가 둔화와 관계 있는 만큼 고용 부진 상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6만8000명 줄어 11개월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여파가 남은 데다 제조업 생산지표가 2~3월에 좋지 않아 후행성이 있는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줬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의료정밀기기와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이 남은 가운데 자동차 산업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제조업 생산지표 악화가 전산업에 영향을 미쳐 취업자수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10만 명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 취업정보게시판. /연합뉴스

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과 건설업 부진도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에 한 몫했다.

지난 달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수는 2만8000명 줄며 11개월째 감소했고 건설업은 작년 월평균 증가 수인 11만9000명에 훨씬 못미치는 3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부진을 면치 못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감소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데다가, 시장이 포화상태라 조정 국면인 측면도 있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조업은 구조조정, 산업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주력 산업부진 지속 등으로 4월 들어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했고 건설업은 주택 준공물량 축소 등의 영향으로 고용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제조업 생산지표는 물론, 수출까지 부진해 경기가 꺾였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연간 고용목표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영향에 주력산업인 제조업

위기가 지속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부진한 것”이라며 “수출도 반도체 빼고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같은 고용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증가 속도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달 40만명 이상 증가하던 15세 이상 인구는 2016~2017년 매달 30만명 대로 감소했고 올해는 1~4월 연속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일자리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취업자 증가폭도 함께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1분기 취업자 증가폭 둔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고령화와 최저임금 인상 효과, 수출이나 투자 등 제조업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조적, 정책적, 경기적 효과가 모두 작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oo.co.kr



제6차 일자리위원회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 및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초동만 근무하는 ‘귀족검사’ 사라진다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도 중단
공정한 기회 제공·지방청 활성화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근무하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평검사의 서울과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4회로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 ‘경향(京鄕) 교류 원칙’을 강화해, 공정한 기회 제공 확대와 지방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대검찰청 전출 검사 가운데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평검사가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을 돌며 서울 근처에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전문 분야를 피해자보호·경제·성범죄·증권 등 47개로 구분하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한다.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을 둔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검찰청에 근무하면, 필요 시 근무 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도 줄인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의 필요성과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포함한 22개 국내 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그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은 중단된다. 법무부는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검사장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해왔다. 대신, 명

제외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6월과 12월에 하는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해당 검사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사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와 파견,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의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글·사건 이법종 기자 joker@

악성 잡초로 오염되고 있는 우리 농경지

농촌진흥청 ‘잡초 정밀 분포 조사’

갈수록 우리 농경지가 악성 잡초에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 잡초와 제초제에 강한 내성을 보이는 제초제 저항성 잡초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경지 발생 잡초 정밀 분포 조사(2013년~201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논·밭·과수원 등에서 확인한 잡초는 총 619종이었다.

이 중 외래 잡초는 166종(약 27%)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사한 결과보다 66종 늘었다.

농진청은 외래 잡초의 증가 원인으로 재배 작물과 재배법의 다양화, 부족한 제초 인력, 기후변화 등을 꼽았다.

문제는 국내에는 외래 잡초의 식물학적 특성이나 방제 정보가 거의 없고 외국의 정보도 국내 상황에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제초제 저항성 잡초의 오염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제초제 저항성 잡초로 알려진 14종의 지난해 발생 면적은 48만8000ha로, 5년 전 17만7000ha보다 2.8배 늘었다. 이 중 물달개비·논피(강피)·올챙이고랭이·미국외풀이 전체의 90%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논에서 2종~3종의 잡초가 동시에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잡초에 의한 농경지 오염이 심각하자 농진청은 외래 잡초와 제초제 저항성 잡초 방제 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전국 농업기술센터와 농가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회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참가 접수를 6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콘테스트는 6월 11일부터 7월 18일 까지 접수를 받아 지역에선 및 본선을 거쳐 올 10월 중 결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방식은 지역예선을 거쳐 45개팀을 선발한 후 전국 본선을 실시하고, 상위 10

개팀이 최종결선 무대에 진출하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선에 진출한 50개팀은 기술, 사업화, 발표 등으로 이루어진 분야별 전문가 멘토단으로부터 1:1 심화 멘토링 지원을 받게 된다.

최종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원이 수여되는 등 총 1억 7천만 원의 상금과 상

장이 수여되며, 결선 진출 10개팀에게는 기술사업화연구개발(R&D)자금과 현장 창업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창업한 지 5년 이내(2013년 1월 1일 이내)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로 식품 및 농산물, 농식품 ICT 접목 분야, 농산물 활용 바이오분야, 농기자재, 서비스, 6차산업 등 농식품분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결합시킨 아이템이라면 무엇이든지 응모가 가능하다.

/세종=최신용 기자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지방선거 전 ‘신규아파트’ 쏟아진다

5월 중 아파트 분양시장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어내기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다양한 평면과 편의시설, 교통·학군 등을 앞세워 수요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창원에서도 새 아파트 분양이 이뤄져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만큼 전세가 하락 등을 고려해 신규 아파트 청약에 나설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강남 노른자 재건축아파트... 브랜드타운 기대감

새 아파트 귀한 부산 북구 ‘역세권’ 단지

| 삼성물산 | 서초우성1차 재건축

| 대우건설 |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

강남역 도보이용... 대형 평형도 공급

전가구 4베이 적용... 학교·학원가 지척

삼성물산이 이달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일대에서 ‘서초우성1차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59~238㎡ 1317가구 중 23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주택형 ▲83·84㎡ 타입이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약 75% 수준이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서초우성1차 재건축은 교통과 생활, 교육인프라가 뛰어나다. 또 서초동 일대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대규모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된다. 먼저 입지면에서 신분당선 강남역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강남대표 도로인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 접근이 쉽다. 여기에 강남역 일대는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와 공항버스 등의 대중교통망도 갖춘 곳이다.

운중이 위치한다. 한편 단지가 들어서는 서초동 일대는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변신 중이다. 이미 래미안 서초에스티지(총 421가구, 서초우성3차 재건축, 2016년 12월 입주)가 입주를 마쳤고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총 593가구, 서초우성2차 재건축, 2018년 1월 입주)도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달 중 부산 북구 화명2구역을 재개발하는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이곳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비조정 대상지역이자 노후 단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교등이 자리잡고 있다. 또 인접한 중심상권 내에 부산화명도서관과 학원가가 조성돼 있다. 또 롯데마트, CGV, 베스트안 부산병원, 북구보건소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서초우성1차(총 1317가구·삼성물산)는 올 봄 분양에 나설 예정이며 서초무지개(1618가구·GS건설), 서초신동아(1356가구·대림산업) 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분양에 나선다. 재건축이 완료 될 경우 서초동 일대는 5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1588-3588)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는 886가구 가운데 64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일반분양 물량 기준 ▲39㎡ 44가구 ▲59㎡ 80가구 ▲74㎡ 21가구 ▲84㎡ 497가구 등이다.

아파트와 인접해 화명생태공원, 부산화명수목원, 대천천 등이 있다. 단지 내 일부 세대에서는 낙동강 및 금정산 조망도 가능하며, 금정산 순환산책로가 마련돼 있다.

북구 화명동은 부산 평균 대비 입주 이후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 새 아파트 대기 수요가 많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북구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입주 예정 물량이 약 2354가구며 특히 화명동은 예정 물량이 부재한 상황이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단지 내부는 4베이(Bay) 신평면과 수납기능 강화 평면으로 구성한다. 스마트 도어 카메라, 고화질 폐쇄회로(CC)TV, 무인택배시스템, 지하주차장 비상콜시스템 등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다양한 설비도 설계된다. (1877-7022)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는 부산지하철 2호선 화명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차량 이용 시에도 만덕대로, 남해고속도로, 덕천나들목(IC) 등 기존 교통망이 잘 갖춰진데다 향후 화명-장전 산성터널(2020년 3월 개통 예정), 만덕-센텀 도시고속화터널(2023년 개통 예정) 등이 계획돼 있다.

교통·생활·교육 3박자 갖춘 ‘명품 아파트’

평촌생활권 누리고 학세권·브랜드 프리미엄까지

| GS건설 | 신길파크자이

| 포스코건설 | 의왕 더샵캐슬

7호선·2023년 신안산 ‘더블역세권’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접해 타지역 이동 수월

신길뉴타운에 명품 브랜드 ‘자이’ 아파트가 들어선다.



GS건설은 오는 6월 ‘신길센트럴자이’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163번지 일대에 ‘신길파크자이’를 분양한다. 신길파크자이는 신길뉴타운 내 신길8구역 재개발 단지로 총 641가구 중 25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은 타입별로 ▲59㎡ A형 1가구 ▲59㎡ B형 2가구 ▲84㎡ A형 12가구 ▲84㎡ B형 171가구 ▲84㎡ C형 10가구 ▲84㎡ D형 50가구 ▲111㎡ 8가구다.

간을 10분대에 이동한다. 신림선은 2022년 개통 예정으로 한창 공사 중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롯데건설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오전 가 구역’을 재건축하는 ‘의왕 더샵캐슬’을 분양한다.

‘의왕 더샵캐슬’이 들어서는 오전동 일대는 약 1만2000여 가구의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가 대규모 신형 주거타운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지난 달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연내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50여km로 신길뉴타운을 경유한다. 신길뉴타운 내에는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과 신풍역 등 두 개역이 2023년 개통 예정으로 7호선 신풍역이 더블환승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2km 이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대방초(혁신초), 대영중·고, 영신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자리해 있다. 향후 신길파크자이 인근에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의왕시 오전동 5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의왕 더샵캐슬’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8개동, 94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평촌더샵센트럴시티’와 ‘평촌더샵아이파크’의 연이은 분양 성공으로 지역 내 브랜드 선호도가 높다.

신림선 도시철도 사업도 작년 2월 착공해 여의도 셋강역부터 대방역, 보라매역 등을 거쳐 서울대 앞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로 여의도~서울대 7.8km 구

2010년에 입주한 신길자이 198가구와 작년에 분양해 2020년 2월 입주 예정인 신길센트럴자이 1008가구에 이어 신길파크자이 641가구를 합하면 약 2000여 가구에 달하는 자이 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 (1644-3278)

안양 평촌에 인접해 평촌 생활권에 속한다. 단지 앞 모락로와 경수대로를 이용하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범계·평촌의 대규모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의왕 더샵캐슬’은 일대에 3번째로 공급하는 ‘더샵’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과 롯데캐슬과의 공동도급으로 더블 브랜드를 적용해 관심을 끈다. 견본주택은 사업지인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52번지 일원에 만들어진다. (031)429-7990

단지 인근으로는 의왕중교, 모락중교, 모락고교 등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 평촌 학원가도 약 2km 거리로 가깝다.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인덕원~동탄북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12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이 단지 앞에 있어 인근 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과천-의왕간도로가 인접해 있다.

1·4호선 금정역 초역세권... 단지내 '쇼핑몰'

| 현대건설 | 힐스테이트 금정역

총 1482가구... 전세대 4베이 구조

현대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보령 제약부지에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금정역'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72~84㎡ 아파트 843가구와 24~84㎡ 오피스텔 639실 등 총 148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아파트는 ▲72㎡ 180가구 ▲73㎡ 181가구 ▲84㎡A 129가구 ▲84㎡B 353가구 등이 다. 오피스텔은 ▲24㎡A 78실 ▲24㎡B 78실 ▲24㎡C 78실 ▲39㎡A 15실 ▲39㎡B 66실 ▲39㎡C 14실 ▲39㎡T1 15실 ▲39㎡T2 56실 ▲39㎡T3 15실 ▲44㎡A 45실 ▲44㎡B 45실 ▲48㎡A 15실 ▲48㎡B 58실 ▲48㎡C 16실 ▲84㎡ 45실 등 원형부터 주거 대체형 평면, 테라스 특화 평면 등으로 다양하다.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과 2층 데크로 직접 연결 예정인 초역세권 단지다. 특히 금정역의 경우 오는 2019년 1호선 급행 열차 정차역으로 공사가 완료된다. 여기에 수도권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수원~금정~삼성~양주)도 추진 중이다. 또한 서울 외곽순환도로 산본IC와 평촌IC, 1번 국도, 군포로 등도 가깝다.

힐스테이트 금정역 단지 내에는 연면적 3만6000



여㎡, 지하 1층~지상 최고 4층 규모의 대규모 하이브리드형 쇼핑몰이 조성된다. 안양시와 군포시 최초로 스트리트몰과 인도어몰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쇼핑몰로, 쇼핑몰 내에는 패션·인테리어 편집샵, 푸드코트 및 브런치점, 북카페, 키즈테마공간 등을 비롯해 5개관(700석) 규모의 멀티플렉스가 들어선다.

군포시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고,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민간택지로 계약 후 6개월이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아파트 전세대가 4베이(Bay) 구조로 실내는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오픈형 주방설계, 일부세대에는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이 제공된다. (1644-0048)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산업단지 접근 쉽고 편의·문화시설 즐비

| 대림산업 |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

단지내 피트니스·라운지카페 조성

대림산업은 경남 창원 회원3 재개발구역 재개발 아파트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지난달 23일 분양을 시작한 이 단지는 기존 마산 원도심을 재개발해 들어서는 만큼 생활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조성되며 1253가구 중 85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 56가구 ▲59㎡ 262가구 ▲72㎡ 190가구 ▲84㎡ 333가구 ▲103㎡ 157가구다.

단지 반경 3km 이내에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과 마산야구장, 마산시립박물관 등 문화시설도 가깝다.

단지 인근에 마산고속터미널과 KTX가 정차하는 마산역을 이용할 수 있고 남해고속도로 접근도 수월하다. 창원시의 대표적인 업무단지인 국가산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지구 등 주요 산업단지까지 20분내로 접근 가능하다.

회원동은 옛 마산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현재 총 5개구역(회원1~5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롯데(회원1구역), 대림·두산(회원2구



역), 대림(회원3구역), 대우·쌍용(교방1구역) 등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은 단지는 4베이 판상형(일부 제외), 맞통풍 구조 평면으로 전 세대 드레스룸, 일부세대에 한해 팬트리도 적용된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시설, 라운지카페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또한 거실에 설치된 아트월과 차별화된 바닥 마감재로 유러피안 스타일의 자연스러운 공간을 연출한다.

바닥재는 기존 바닥재(95mm)보다 20mm 넓은 115mm의 폭을 갖춘다. 바닥재의 변화만으로 공간에 깊이감과 공간감을 한층 더해준다.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의 주택전시관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471-15번지에 위치해 있다. (055) 296-0033

'준공 완료' 부동산대책 비껴가 전매거래 OK

| 한화건설 |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

마곡지구까지 10분... 북유럽풍 조경 자랑

한화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5지구에 공급한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 아파트 계약을 진행 중이다.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이하 김포 유로메트로)는 지난 4년간 전세와 반전세로 진행한 단지다. 최근 김포 지역의 고급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반분양하고 있다. 단지 규모는 두 개 블록(1B L·2BL) 1810가구 대단지로 ▲84㎡ 1274가구 ▲101㎡ 461가구 ▲117㎡ 75가구다.

한화건설은 84㎡ 1274가구를 먼저 일반 분양 전환해 계약마감하고 101㎡·117㎡ 536가구를 연이어 분양 중이다. 김포 유로메트로의 평균 분양가를 3.3㎡당 1150만원으로 책정했다. 84㎡(분양가 3억 8000만원부터)는 조만간 계약 마감을 앞두고 있다. 101㎡는 분양가 4억 3800만원부터, 117㎡는 5억 760만원부터 시작한다.

김포 유로메트로 이미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 2018년 5월말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세대부터 바로 입주 가능하다. 또한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중



도금 부담도 없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10% 계약금을 지불한 후 나머지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하면 된다. 김포는 부동산 대책 제외지역으로 계약 후 전매거래도 즉시 가능하다. 풍무도시개발 구역은 김포 내 도시개발구역 중에서도 서울 마곡지구까지 직선거리로 8.7km에 불과해 10분대면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내년 11월에 개통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풍무역(가칭)이 들어선다.

김포 유로메트로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풍무근린공원은 축구장 9배 크기로 조성된 공원이다. 특히 단지 내 북유럽 스타일의 뛰어난 조경시설이 자랑이다. (1544-3400)

지하철역·학교·공원, 도보 5분 '노른자'

| 쌍용건설 | 용마산역 쌍용에가 더 클라우드

주변 편의시설 조성... 전가구 '남향'

쌍용건설이 이달 중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05번지 일대에서 '용마산역 쌍용에가 더 클라우드(The Cloud)'를 일반분양한다. 총 6개 구역으로 개발 중인 면목동 재건축사업단지 중 6구역에 들어설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15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245가구 규모로 조합원분을 제외한 12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이 아파트는 일대에서는 드물게 지하철역과 학교, 공원을 모두 도보 1~5분 내에 누릴 수 있다.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이 걸어서 1분 거리인 약 80m에 위치해 강남구청역을 15분대에 이용할 수 있고, 중곡초와 용마중은 불과 120m 거리다. 대원외고, 대원여고 등도 약 1km에 인접해 있다. 단지 앞의 용마산 외에도 17만㎡ 규모로 조성된 용마폭포공원도 불과 250m 거리에 위치하고 흙플러스, 면목시장,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도 가깝다.

내년 완공될 (가칭)광진종합의료복합단지 외에도 면목복합행정타운(2019년 착공 목표)과 중랑천수변공원(2023년)도 조성된다. 또한 인근에 고층건



물이 없어 탁월한 개방감과 조망권을 갖춘 이 아파트는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주차장은 환기와 이용이 편리한 데크식이다.

부대시설로 전자책 도서관은 스마트폰 및 PC를 이용해 다양한 신간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무인 택배·세탁 시스템이 적용된다. 또 휴게공간과 주민운동시설 등도 갖춘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하철과 학교, 공원이 모두 약 200m 이내에 위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시행 등으로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걱정거리를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02)-491-3131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가속도

휴양시설·골프장 조성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오는 29일까지 공모 관광·도시계획·토목·건축 등

광주시가 민간사업자 공모에 이어 평가심의위원 공모에 나서는 등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원을 오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33명을 공모해 인력풀을 구성한 뒤 평가심의위원 11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분야는 개발계획, 사업수행 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 계획 등이다.

전문가 모집 분야는 관광, 도시계획, 토목, 건축, 환경, 교통, 재무, 법무, 지역개발, 주민지원, 시설운영, 관광마케팅 등이다.

신청 자격 요건은 대학 전임강사(조

교수)·연구기관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해당 분야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다.

해당 평가대상(제안)과 관련해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했거나 이해당사자, 당 평가대상 업체 재직자 등은 제외 대상이다.

지난달 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냈다.

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평가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어등산 골프장이 중심에 있는 이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원에 민간자본 3천400억원을 투입, 각종 유원지와 휴양 시설·호텔·골프장·경관녹지 등을 조성하

는 프로젝트다.

불발탄 제거, 경기불황, 민간업체 자금난, 공공시설 개발부담에 따른 수익성 결여 등으로 2006년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전혀 진척이 없다.

광주시는 지난 10여 년간 답보상태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재개하고자 민관위원회를 개최해 시민·중소상인 단체와 합의안을 마련했다.

상가시설 면적은 2만4천170㎡ 이하로 제한하나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은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제한사항을 최소화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6월 중순까지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와 사업 적정성 심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절차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한국민화뮤지엄 전경

카자흐스탄 대통령박물관서 민화 특별展

전남 강진군 청자촌에 있는 한국민화뮤지엄은 오는 6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두 달간 카자흐스탄 대통령박물관에서 ‘한국의 현대민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과 카자흐스탄 대통령박물관 초청으로 열린다.

전시에는 민수회 소속 작가 3명이 참여한다. 민수회는 한국민화뮤지엄에서 매년 진행하는 대한민국민화대전과 조선민화박물관이 주최하는 전국민화공모전의 역대 수상자들의 모임이다.

전시는 현대 민화의 세 갈래인 재현민화, 창작민화, 민화공예 세 분야로 나누

어 진행된다.

참여 작가들은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해 현지인들에게 민화를 가르치고 알리는 자리도 마련한다.

오석환 한국민화뮤지엄 관장은 “카자흐스탄에서 민화 전시가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이번 전시가 전통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민화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회 가입 자격을 판가름하는 한국민화뮤지엄의 대한민국민화대전은 6월1일부터 12일까지, 조선민화박물관의 전국민화공모전은 8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전남 강진=김남중 기자

대축제 앞두고 ‘음식·숙박업’ 특별 위생점검

보성군, 민간 합동단속반 편성 숙박업 20곳·음식점 300곳 점검

보성군은 오는 18일부터 5일간 열리는 제44회 보성다향대축제를 앞두고 관내 음식·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위생점검은 축제기간 중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절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보성 구현을 위해 추진됐다.

군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숙박업소 20개소와 음식점 300여개소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음식 위생 관리 ▲남은 음식 재사용 및 식재료 음용수 위생적 취급 여부 ▲객실 및 침구류, 욕실, 화장실 청결상태 ▲객실 소독여부 및



보성군 담당 공무원들이 음식점 주방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안전한 음용수 제공여부 ▲숙박요금표 게시 및 부당여부 징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친절서비스 실천, 식중독 예방, 음식 재사용 금지 등 현지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지도 및 시정조치 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압류폐기 및 행정처분을 통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축제기간에도 상항유지 등 각종 위생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m8527188@

해남군 수산물 위판장, 유통거점으로

전남 해남군 수산물 위판장이 지역 수산물 유통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문을 연 수산물 위판장은 13일까지 3억 8000여만 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해남산 낙지를 비롯해 주꾸미, 문어, 갑오징어, 돌게 등 수산물을 경매했다.

특히 해남산 낙지는 9만5606마리, 위판액 3억7500여만원을 기록했다.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다면 연간 위판액 40억 원을 넘을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송지와 북평, 북일 등 땅끝 일원은 물론 황산, 화산 등 해남 전역에서 낙지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다.

해남산 낙지 가격은 상품 한 마리 평균 8716원, 최고가는 1만원을 넘는 등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해남산 낙지는 연간 200여톤 생산되고 있지만 그동안 개인 집하를 통해 판매돼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타지산이 해남산으로 둔갑하는 등 유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해남군은 올해 9천만원을 들여 군내 3개소에 낙지 산란장을 조성한다.



지난 4월 초 개장한 해남군 수산물 위판장이 지역 수산물 유통의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낙지자원 조성은 산란 전 어미 낙지를 자연 상태로 방사해 낙지 생산량을 늘리고 서식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5~6월 중 화산 중정, 북평 와룡·오산 등 3개 어촌계에 어미 낙지 3천마리를 방생한다.

어미낙지 1마리당 평균 100개 정도의 알을 가지고 있어 감소하는 낙지 생산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 해남=김남중 기자



보성군 광주·전남 교원 환경성질환 직무연수

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광주·전남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시작된 직무연수는 오는 8월까지 각 회차별로 30명씩 총 7회에 걸쳐 친환경적인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환경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마음 채우기라는 주제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

육, 기초검진 및 상담, 도형심리, 올바른 걷기의 이해 및 실천, 원예를 이용한 치유, 힐링요가 등 이론과 체험 교육이 병행하여 실시된다.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광주·전남 교육연수원이 지정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 기관이다.

센터와 숙박동 모두 친환경 자재로 만들어져 환경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체험이 가능하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함평군보건소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전남 함평군보건소는 6월30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지를 특별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소는 본격적인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불법 파종과 밀매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광주지방경찰청 목포지청을 비롯한 4개 시·군(목포, 무안, 신안, 영암)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지정돼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함평군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곳을 발견하면 보건소나 경찰서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김남중 기자

목포항 대불부두 3개 선석 민간업체 위탁

전남 목포항 대불부두 3개 선석을 민간업체가 운영한다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대불부두 운영회사 선정 심사 결과 제61선석은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가칭 대불항만, 제62선석은 CJ대한통운, 제65선석은 세방을 각각 선정했다.

대불부두는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철재 관련 화물을 주로 취급했지만, 조선경기 침체로 2016년부터 물동량이 급격히 줄었다.

목포해양청은 신규 물동량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불부두 공

용 2개 선석과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신규 선석 등 총 3선석 부두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부두운영회사(TOC)제를 도입했다.

김평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대불 공용부두 및 신규부두를 TOC부두로 전환해 침체한 목포항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대불부두가 대불산업단지의 대외 교역 거점항만으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김남중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개린이날 축하해~” 가정의 달 반려용품 판매 쑥쑥

〈개+어린이날〉

간식·케이크·캣타워 등 선물하며
반려동물과 기념일 보내는 펫팸족↑
유통가 관련제품 잇따라 출시 ‘눈길’



캣타워.

/몬도미오



▶웰츠의 ‘웰츠바삭’

‘펫팸족’들이 선물이나 파티를 통해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은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날을 더욱 기념하기 위해 의류나 침구류를 직접 만들기도 한다.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날 대신 ‘개린이날(개+어린이날)’, ‘냥린이날(고양이+어린이날)’을 챙기는 것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에 업계도 펫팸족들을 마을을 사로잡을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16일 온라인마켓 옥션이 ‘펫팸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펫팸족은 한 달 평균 13만3000원의 양육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안전과 성분을 인정받은 간편 간식, 집안 인테리어 맞춤형 캣타워, 수제 케이크 등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을 선보이며 보호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간식은 양육비의 1순위를 차지할만큼 보통 때에도 구매가 잦은 품목이다. 자주 그리고 다양한 간식이 출시되는만큼 간식을 고를 때에는 기호성뿐 아니라 안전과 성분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영양과 안전성이 높은 특별한 건강 간식을 찾고 있다면 원재료 그대로 담은 동결건조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리온 수의사가 만든 웰메이드 펫푸드 ‘웰츠’에서 새롭게 선보인 웰츠바삭 2종은 반려견, 반려묘의 영양 충전을 위한 파우치 형태의 동결건조 건강 간식이다. 영하 80도에서 원재료가 가장 신선할 때 열을 가하지 않고 수분을 급속 동결시켜 건조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웰츠바삭 2종은 각각 100% 국내 닭가슴살, 100% 러시아산 명태만을 함유해 바삭한 식감과 영양소를 그대로 담았다. 특히 탈색제, 방부제, 색소, 첨가제 등의 식품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으며, 반려동물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염분 함량을 1% 이하로 낮췄다.

높은 곳에 올라가 안정을 취하면 스트레스까지 해소시켜주는 캣타워는 반려

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지만 우리 집 구조에 알맞은 캣타워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몬도미오의 모듈형 캣타워는 필요한 양만큼 모듈을 더하고 빼 다양한 구성과 배치가 가능한 모듈형 DIY 가구다. 고양이의 생물학적, 행동학적 특성을 고려해 놀이, 운동,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별한 공구없이 손쉽게 조립과 해체가 가능하며, 공간에 따라 다양한 구성과 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캣타워 중간마다 반려묘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해먹, 와이드루프, 스텝 등의 전용 악세서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독창적인 기술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굿디자인 어워드 우수 디자인에 선정된 바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허를 획득하며, SNS를 비롯한 온오프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별한날, 빠져서는 안되는 것이 케이크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영양을 가득 담은 수제 케이크를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건강뿐 아니라 맛과 모양까지 신경 쓴 케이크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반려동물의 기호와 영양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 코코아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마이펫 파티쉐리 요거트케이크는 설탕, 인공색소, 방부제 등을 첨가하지 않은 저칼로리 수제 간식이다. 주문 확인 후 제작이 들어가는 감자지 발바닥 모양의 수제 케이크는 바나나, 망고, 딸기 등 생과일과 직접 발효한 요거트를 사용해 만들어진다. 유당에 민감하거나 유제품 알레르기가 심하다면 급여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11번가 ‘애견 안티에이징 대세’ 맞춤형 건강사료 판매

11번가는 세계 최초 ‘처방식 사료’를 개발해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료 브랜드 ‘힐스펫 뉴트리션’의 신제품 ‘어덜트 에이지 디파잉’을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덜트 에이지 디파잉은 11세 이상의 초·소형견의 노화방지를 위한 영양사료이며 오메가-6 지방산, 비타민E 등 균형 잡힌 영양소가 활동성을 되찾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체중 2.3kg 반려견의 1일 권장 급여량(58g) 기준으로 약 5주분(2kg)이다.

11번가는 이번 신제품 단독판매를 기념해 오는 22일까지 정가 24000원의 상품을 2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노령견에게 생기기 쉬운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관리용품도 다양하게 출시되는 추세다. 올해 들어 ‘노령견전용 기능성사료’의 거래액은 지난해 대비 13% 늘었고 ‘강아지 유모차’는 7%, ‘영양제’ 거래액은 69% 급증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중진공, 강원도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맞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강원도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지난 15일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공유 ▲정책자금·기업진단·컨설팅·연수사업 등 패키지 지원 ▲정책발굴 ▲공동사업 수행 및 참여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직 이사장(오른쪽)이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규칙적 간암 감시검사 환자, 생존기간 더 길다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김휘영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이희의료원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B형 또는 C형 간염 환자, 간경변증 환자 등에 대해서는 6개월 마다 초음파 검사 등 이른바 ‘간암 감시 검사’를 시행할 것을 국내외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다.

최근 간암이 발생한 환자 중 규칙적인 감시 검사를 시행 받은 환자가 시행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생존 기간이 길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정기적인 감시 검사가 간암 조기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한 연구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김휘영 교수는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정훈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간암으로 진단된 1402명을 8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규칙적인 감시 검사를 시행 받은 834명과 불규칙하게 검사를 시행 받은 464명, 아예 시행 받지 않

은 104명의 세 군으로 나눠 생존 기간을 비교한 결과 규칙적인 감시 검사를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30% 이상 감소함을 밝혔다.

이는 규칙적인 감시 검사를 시행 받은 환자들은 64%가 초기 간암 단계에서 진단되고 52%에서 수술 등 근치적 치료를 시행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인용 기자

필련형 전자담배 인기 ‘활활’, 1억6300갑 팔렸다

(출시 11개월 만)

지난해 5월 첫 선…판매량 증가세
보건당국 덩달아 금연 정책 ‘비상’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가열식 필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필립모리스가 2017년 5월 아이코스를 내놓으며 국내 첫 선을 보인 필련형 전자담배가 올해 3월 현재까지 1억6300갑(1갑당 20개비)이 판매됐다.

필련형 전자담배의 월별 판매 현황을 보면,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필련형 전자담배의 월별 판매량은 국내 선보인 2017년 5월 100만갑이었다. 6월 200만갑, 7월 1000만갑, 8월 1700만갑, 9월 2000만갑, 10월 2100만갑 등으로 지속적으로 올랐다.



필련형 전자담배 릴

/KT&G

과세당국과 보건당국이 규제에 나서면서 잠시 주춤해졌다. 당시 필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이 확실시되면서 2017년 11월 1100만갑, 12월 1200만갑으로 급감했다.

올해들어 판매량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올해 1월 2300만갑, 2월 2200만갑, 3월 2400만갑 등으로 2000만갑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같은 필련형 전자담배의 인기로 보건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은 남성흡연율을 30% 밑으로 떨어뜨리려 했지만, 필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유지되면서 올해 12월말부터 필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세포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등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의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헬스플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떨어뜨리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2014년 43.1%에 달했던 남성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2015년 39.4%로 떨어졌지만 가격인상의 충격이 가시면서 2016년 40.7%로 조금 반등했다.

/박인용 기자

코웨이 활용도 높은 ‘사계절 의류청정기’

옷 방까지 케어하는 ‘2 in 1’

코웨이는 ‘코웨이 사계절 의류청정기(FA D-01)’ (사진)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오늘 입은 옷은 물론 사계절 의류를 보관하는 옷 방까지 안팎으로 청정 케어해주는 혁신적인 2in1 제품이다.

이번에 선보인 의류청정기는 의류관리기와 공기청정기를 결합한 것으로 의류 집중 케어는 총 3단계를 거쳐 옷에 묻은 미세먼지, 생활먼지는 물론 냄새와 주름까지 케어해 새 옷 같은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첫 단계는 코웨이의 핵심 경쟁력인 에어 케어 기술을 기반한 3-WAY 파워 블로잉 시스템을 적용해 파워 에어샷으로 옷의 큰 먼지, 에어샷 옷걸이로 내부 옷감의 작은 먼지, 에어 서큘레이션으로 남아 있는 먼지까지 강력하게 흡입한다. 그다음 전기분해 살균 시스템으로 생성된 미세한 나노 미스트가 옷감 구석구석 빠르게 흡수돼 먼지와 냄새 입자를 씻어낸다. 마지막으로 히트 펌프 기술을 적용해 저온에서 빠르게 옷을 건조시켜 옷감 손상이 없게 관리해준다.

공간 케어는 공기청정과 제습기능이



탑재돼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4단계 필터시스템은 극세사망 프리 필터·맞춤형 필터·탈취 필터·해파 필터로 구성되며 상황과 공간, 계절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청정하게 지켜준다.

/김승호 기자 bada@

편의점 인기, '커피'가 이끌고 '디저트'가 밀어준다

외식업계 가격 인상으로 문턱 높아져
원두커피와 함께 디저트 수요도 증가
카테고리 다양화·지속개발 박차

최근 외식 및 식음료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가운데 전문점에서 주로 찾던 디저트를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 원두커피가 인기를 끌면서 높은 품질의 디저트를 즐기려는 수요가 동시에 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의 지난해 디저트 매출은 전년보다 135.4%가 늘었다. 이어 올해도 3배(205.7%) 가량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디저트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GS25에서도 디저트 카테고리를 강화하며 관련 매출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GS25의 디저트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대비 2016년 74.8%, 2017년 89.6%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데 이어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234.6%의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CU에서는 올해들어 디저트 매출이



한 여성 고객이 GS25에서 고객이 디저트 상품을 고르고 있다. /GS리테일

210.6%나 급증했다.

편의점 디저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근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물가가 뛰고 있는 동시에 편의점에서 커피를 즐기는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신열 BGF리테일 스낵식품팀 MD는 "국내 디저트 시장은 연간 9조원대로 전체 외식 시장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최근 가격인상으로 카페, 레스토랑 등의 문턱이 높아지자 편의점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

다"고 설명했다.

실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가성비 높은 상품들은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젊은 소비자층들이 주로 구매하고 있었다. CU의 디저트의 연령별 매출 비중을 보면 20대가 33.2%, 30대가 23.0%로 2030세대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60%에 달한다.

디저트와 함께 즐기면 좋은 원두커피의 수요가 늘어난 것도 디저트 상품이 강화된 이유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GS25의 원두커피 매출은 지난 2015년 12월 카페25를 론칭한 이후 2015년 67.1%, 2016년 242.7%, 2017년 268.9%로 매년 200%를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판매량 역시 출시 27개월만에 지난 3월 누적 판매량 1억잔을 돌파했다. GS25는 현재 8500개 점포에서 카페25를 판매하고 있으며 취급 점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에서 운영하는 세븐카페는 지난 2015년 1월 업계 최초로 원두커피 사업을 개시,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8500만잔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4700여 점포

에서 판매중이며 올해(1~3월)도 전년 대비 30.5%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이같이 편의점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업계도 상품 구색을 더 다양화하고 있다. GS25는 2016년 10종, 2017년 15종의 디저트를 판매하다 현재는 타라미수, 모찌롤, 브라우니, 조각케익, 슈, 타르트, 카스텔라 등 20여종의 다양한 디저트 상품을 내놨다.

세븐일레븐은 건강하게 디저트를 즐기려는 소비자 수요에 발맞춰 디저트 상품 구성을 강화했다. 세븐일레븐에서는 '딸기 모찌', '크림 모찌' 등 떡을 활용한 디저트가 전통적으로 인기 디저트였던 조각케이크류 상품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올랐다.

김다솜 세븐일레븐 디저트 담당 MD(상품기획자)는 "최근 편의점에서 디저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건강까지 고려한 색다른 디저트를 즐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편의점 디저트 열풍을 이끌어갈 건강한 디저트 상품들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개점 1000일' 현대백 판교점

원정 쇼핑객 몰려... 광역 백화점 '자리매김'

경인지역 해외 명품 브랜드 최다
최고 수준 식품관 등으로 차별화

개점 1000일을 맞이한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광역 백화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수준의 해외 명품 MD 구성에 주변 교통여건까지 개선되면서 판교점을 찾는 원정 쇼핑객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은 판교점을 방문한 고객이 지난 2015년 8월 오픈 이후 현재까지 774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약 2500만 명)이 판교점을 세 차례 이상 다녀간 것으로 2만6000명을 수용하는 잠실야구장이 2900회 회전되고도 남는 수치다.

매출도 순항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지난해 8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 들어서도 현대백화점 15개 전 점포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신장률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광역 상권 고객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띈다. 기존 핵심 상권(성남·용인) 외에 안양·의왕·수원(광교)·여주·이천 등 광역 상권에서 판교점을 찾는 원정 고객이 늘고 있다. 핵심 상권(성남·용인)이 아닌 안양·수원·여주 등 10km 이상 떨어진 광역 상권 매



현대백화점 판교점 5층 화장품마 앞에서 직원들이 '판교랜드'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출 비중도 오픈 첫 해인 2015년 38.6%에서 올 들어(1~4월) 51.8%로 증가했다. 이는 현대백화점 15개 전점 평균 광역 상권 매출 비중(30%)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판교점이 단기간에 '광역 백화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건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다.

판교점은 '수도권 최대 백화점(영업면적 9만2578㎡·2만8005평)'이란 수식에 걸맞게 경인지역 최다 해외 명품 브랜드를 입점시켜 서울 강남권에 버금가는 명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수도권 남부 지역에선 찾기 힘든 까르피에·티파니·에르메르·파넬라이 등 29개의 해외 명품 브랜드들도 대거 입점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식품관도 빼놓을

수 없다. F&B 브랜드들이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며 맛집 순례객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상태다. 축구장 두 배 크기의 판교점 식품관(1만3860㎡)에는 이탈리아프리미엄식자재 전문점 '이탈리', 일본의 천재 파티시에 쓰지구치 히로노부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몽상클레르' 등 국내에 첫선을 보인 해외 유명 브랜드를 비롯해 삼송빵집과 서울페이스트리 등 지역 맛집도 대거 입점해 있다.

뛰어난 문화콘텐츠도 원정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한 몫을 했다. 5000원의 그림책과 2개의 전시실을 갖춘 '현대어린이책미술관(2736㎡·830평)'이 대표적이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은 오픈 이후 현재까지 50만명이 다녀갔다. 이 중 29만명은 10km 이상의 원거리 거주 고객이었다.

판교점 주변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원정 고객 유입을 이끈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지난 2016년 3월 여주-이천·판교를 잇는 경강선(북선 전철)이 개통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안양과 성남을 잇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부분 개통한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간 판교점을 방문한 안양 거주 고객은 개통 전 3개월에 비해 31.1%가 늘어났다. /김유진 기자

무더위·남북정상회담에 '간편식냉면' 특수

CJ제일제당 전년비 매출 20% 올라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남북정상회담 영향으로 간편식 냉면이 때 이른 특수를 누리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3주간(4월 22일~5월 12일) '간편식 냉면' 매출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만 40억원 이상으로, 출시 이후 동일한 기간 동안 최고치 매출을 찍었다. 특히 정통 평양냉면 레시피를 구현한 대표 제품 '동치미 물냉면'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며 일부 유통채널에서는 품절사태까지 발생할 정도였다.

일 평균 최고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여름 날씨에 남북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된 '평양냉면' 인기가 '간편식 냉면'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평양냉면은 지난달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만찬 메뉴로 선정돼 '평화냉면'으로 불리며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경쟁사들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며 소



비자 입맛을 공략한 점도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CJ제일제당은 '동치미 물냉면'을 앞세워 이미 지난 4월부터 일찌감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평양물냉면'과 '시원한 배 물냉면'을 새롭게 선보였다.

CJ제일제당은 이런 추세에 힘입어 소비자 마케팅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시원한 배 물냉면' 출시를 기념해 50명의 제품 체험단을 모집한다. 온라인/SNS를 통해 다양하고 맛있게 '간편식 냉면'을 즐길 수 있는 레시피 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CJ제일제당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성장한 매출 300억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균일한 흡연감·편리한 청소 '릴 플러스' 첫 선

KT&G '릴' 디바이스 후속모델 출시

KT&G가 오는 23일 권련형 전자담배 '릴 플러스(lil Plus+)'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릴 플러스'는 소비자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릴(lil)' 디바이스 후속으로 출시되는 모델 체인지 제품이다.

'릴 플러스'에는 히팅 기술 및 청소 기능 등 많은 기능적인 특징이 추가됐다. 우선, 듀얼히팅 기술을 적용해 전용 스틱에 열이 닿는 면적을 넓혀, 전용 스틱을 골고루 가열하여 끝까지 부드럽고 균일한 흡연감을 구현했다. 또한 히터에 점착된 잔여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화이트닝 클린'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의 '가열청소



기능' 보다 편리한 청소 시스템을 갖췄다.

디자인에도 변화 생겼다. '릴 플러스'는 디바이스 외관에 '소프트 코팅'을 적용하여 부드럽고 섬세한 그림감을 구현했다. 전원 버튼에는 기기 작동 시에만 은은하게 빛이 나는 '히든 LED'를 채택했고, 테두리를 '메탈 프레임'으로 감싸 절제되고 세련된 감성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무게는 84g으로 기존 릴(90g) 보다 더 가벼워졌다.

'릴 플러스'의 권장 소비자가는 11만원으로 할인쿠폰(2만7000원) 적용시 8만3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박인용 기자

유명 브랜드와 협업했더니... 롯데마트 매출 '쑥쑥'

최근 대형마트의 패션PB가 유명 패션 브랜드들과의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과 높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갖춘 하나의 브랜드로 변화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SPA 의류 브랜드 '테(T E)', 언더웨어 전문 브랜드 '보나핏(bona fit)', 슈즈 멀티 브랜드 '스매싱 나인(Smashing 9)' 등이 유명 브랜드들과 협업해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상품 소재의 고급화, 디자인 다양화, 단독 상품 출시 및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우며 고객 만족과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다. 그 결과 지난해 롯데마트 전체 매출에서 26.6%를 차지하던 패션 부문의 매출구성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0.9%를 차지하는 등 4.3%포인트 매출 비중이 늘었다.

롯데마트의 대표적인 콜라보 상품은 '보나핏 울트라쿨(ULTRACOOL) 언더웨어'의 '코오롱패션머티리얼 라인'이다. 이는 롯데마트가 '코오롱패션머티리얼'과 함께 하절기 고객 수요에 최적화된 소재를 찾아 적용한 상품이다.

올해 3월말부터 출시된 보나핏 고기능성 언더웨어 25종은 출시 1달여 만에 1만5000장 이상이 판매됐다. 시중 유명 브랜드 고기능성 언더웨어 상품 대비 30% 가량 저렴한 가격도 매출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김유진 기자

최신원 회장 “한국·브라질 협력 증진 계기 되길”

SK네트웍스

한·브라질 비즈니스포럼 개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사진)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제7차 한국·브라질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했다.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이번 포럼은 현지 브라질 로펌 및 컨설팅 기관, 상파울루대학교 등에서 최고의 브라질 전문가들을 초청해 브라질의 비즈니스 환경 및 유망 진출 분야 등을 논의했다.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는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브라질 간 교류 증진과 협력 강화 그리고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1년 6월에 설립된 순수민간단체로, 최신원 회장이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다.

제1부에서는 10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브라질의 정치경제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했

다. 제2부에서는 세계 3대 경제통합체인 남미 공동시장(MERCOSUR)과의 무역협정 협상을 앞두고 남미공동시장이 제공하는 막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제3부에서는 최근 브라질의 제도(법)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비한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최신원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 회장은 포럼개최와 관련 “지난 2012년부터 개최해온 포럼이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상 개시를 앞두고 시작되는 만큼 남미공동시장의 주축인 브라질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공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동서식품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

동서식품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한 ‘제19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의 시상식이 16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시상식은 수상자인 조한승 9단, 박영훈 9단을 비롯해 이광복 동서식품 사장, 유창혁 한국기원 사무총장 등 대회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우승자인 조한승 9단은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첫 우승 트로피와 함께 우승 상금 5000만원을 수상했다.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했던 박영훈 9단은 아쉽게 결승에서 패하며 준우승 트로피와 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번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은 이번 대회부터 본선 24강전에서 32강전으로 규모를 확대해 바둑계 및 팬들에게 시작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으며, 조한승 9단이 첫 우승을 차지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9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에서 동서식품 이광복 사장(왼쪽)과 우승자 조한승 9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서식품

/박인용 기자 parkiu7854@

SKB 경찰청·연세대와 ‘청소년 영상단’ 협약

16일 서울·인천 경찰청 대강당서 열려

SK브로드밴드는 16일 서울경찰청, 인천경찰청, 연세대학교와 손잡고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과 인천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각각 ‘청소년 영상단’ 발대식을 열었다.

‘청소년 영상단’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사회 내 치안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 유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 및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600여명과 연세대학교 학생, 경찰 등을 합쳐 총 70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이날 ‘청소년 영상단’ 발대식은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오전에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서울지역 발대식에는 중·고등학교 200여명과 경찰(피해자담당경찰, 인권담당경찰 등)을 비롯해 250여명이, 오후에 인천경찰청에서 진행된 인천지역 발대식에는 중·고등학교 400여명과 경찰을 비롯해 450여명이 참여했다.

발대식 이후 서울지역에서는 오는 30일 영상단을 대상으로 영상제작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며, 인천지역에서는 이달 말까지 지역경찰서 현장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달 9



SK브로드밴드는 16일 ‘청소년 영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오른쪽 첫번째부터) 이재호 SK브로드밴드 이재호 경영지원부부장, 정창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남석인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센터장.

/SK브로드밴드

일부터 이틀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영상단 캠프를 진행하며, 이후 1차 영상제작, 중간 평가회, 2차 영상제작, 영상제 등의 순서로 활동이 이어지게 된다.

/김나인 기자 skni@

에스오일 소방관 부부 초청해 ‘휴캠프’

에스오일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소방관 부부 70쌍을 초청해 15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에스오일 소방관 부부 휴(休) 캠프’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방관의 사기진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S-OIL의 ‘소방영웅지킴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대 근무와 잦은 현장 출동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소방관들에게 부부애를 돈독히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장기 근속 현장직 소방관들을 우선 선별했다. 캠프에 참가한 소방관 부부들은 성산일출봉, 자연 휴양림 등 제주 명소 방문, 아쿠아리움 관람,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제주 문화 체험 등을 하며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오늘의 운세

5월 17일 (음 4월 3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리는 없다. 60년생 급할수록 자중하고 서두르지 말라. 72년생 친척과 대화하다 사소한 불화가 생긴다. 84년생 인수 운이 있어 교섭이나 거래가 순조롭게 처리 된다.

소 49년생 뜻밖의 일로 육신이 고달프니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61년생 과유불급이니 과다한 영양제 복용을 중지하라. 73년생 처음부터 시작이 잘되니 마무리도 잘된다. 85년생 집안 주변이 시끄러우니 두문불출이다.

호랑이 50년생 시작이 반이니 우선 착수하여 밀고나간다. 62년생 창의력이 발휘하여 계획 구상이 좋다. 74년생 취입이 대길하니 다시 도전 하자. 86년생 굳은 의지를 발휘하여 조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된다.

토끼 51년생 상하 공과 사를 구별하여 올바르게 일 처리할 때. 6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파이팅하자. 75년생 건강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 하자. 87년생 가화만사성이니 가정의 화목이 성공의 요소가 된다.

말 52년생 자신의 특기를 큰 자랑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별거 아니다. 64년생 변화의 운이 들어오니 망설이지 말라. 76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 밀어붙일 때다. 88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 보인다.

뱀 53년생 우물에 갇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한 하루다. 65년생 힘들어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라. 77년생 바다와 같이 넓은 은혜를 부모님께 드리는 때다. 89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계획대로 뜻한바가 달성 될 수 있다.

말 54년생 한단계 발전하는 운이지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66년생 과거에 배운 숨은 공덕이 들어오는 인덕이 있는 날이다. 78년생 재물이든 상생하여 금전 융통 원활하다. 90년생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

양 55년생 타인의 사정을 헤아려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67년생 맨 손에 빈 주머니로 시작하지만 끝은 장대하다. 79년생 남보다 부지런해야 계획대로 성취된다. 91년생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여 몸의 컨디션이 저조하다.

원숭이 56년생 동업자가 뒷주머니 행기는 것을 주의깊이 살펴라. 68년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처음 시작하는 시기다. 80년생 방심한 태도가 술과 늦잠을 부른다. 92년생 바쁜 하루지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닭 57년생 꿈 해몽이 좋으니 횡재수가 있다. 69년생 남의 일에 끼여들어 관재구설수가 있는 하루. 81년생 바늘에 실 가듯이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으니 꾸준히 노력하라. 93년생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만사가 길운으로 진행되는 하루.

개 58년생 부러울 것이 없는 하루. 70년생 위에서 끌어주고 밑에서 받쳐주니 소망 대길 수. 82년생 청명한 날씨에 바람도 잔잔하니 산책 출몰 때 94년생 귀인을 찾으려면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니 가까운 곳을 가 보아라.

돼지 59년생 현재는 힘들어도 항상 내일을 준비하라. 71년생 무책임한 행동은 시뮬러리를 만들게 된다. 83년생 굶어 부스럼하는 일은 손을 떼야 한다. 95년생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보다 장래의 큰 이득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4	9		6	
	8			7				
		5	9		7	2		
4							1	
		2	8		1	5		
	1							3
	6	9			8	4		
			7					3
1		4		5		8		

		1	6	8		7	2	3	
7				1		9			8
	9	8					7	5	
5									2
	1		7	6		2	5		4
		2			3				7
			1					9	
					4		5		
						8			

스도쿠 정답								
1	9	8	6	5	2	7	4	3
6	1	5	9	7	8	2	3	4
2	5	7	8	1	6	9	4	3
3	6	2	5	7	9	1	8	4
7	2	1	5	9	8	6	3	4
8	1	9	2	6	4	5	7	3
1	2	4	8	6	5	7	9	3
5	7	4	2	9	1	8	6	3
9	8	6	7	1	5	2	4	3
4	2	9	1	8	6	5	7	3
3	6	5	7	2	1	8	9	4
9	2	1	7	4	9	8	6	3
7	8	5	2	6	9	4	1	3
2	6	4	8	1	7	9	5	3
1	5	2	9	7	4	8	6	3
8	9	7	6	2	1	5	4	3
6	1	3	2	5	8	9	1	7

문제 제공= 보너스

참여연대의 과도한 '참여'



윤우중의
잠시 쉼표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활약상'이 너무나도 눈에 띈다.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실 선임행정관, 홍일표 정책실장실 선임행정관 등 참여연대 출신이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의 요직에 대거 포진해 있다. 얼마전 피감기관으로부터 외유성 해외출장을 갖는 의혹으로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서로 비슷한 사상과 철학으로 뭉쳐 기존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새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물도 고이면 썩듯이 기존 정권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 넘치면 차라리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권력을 뒷배감 삼은 참여연대의 '왕성한 활동'을 보면 딱 이 말이 생각난다. 권력에 대한 감시

와 비판을 하겠다는 참여연대는 그 선을 넘어 그들의 의지와 철학을 관철시키고, 그들의 뜻에 어긋나면 '여론재판'을 하려 든다.

당장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참여연대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다루는 감리위원회 전원에 대한 명단과 이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리위원장을 비롯한 두 명을 위원회에서 스스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정부, 즉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불신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게다가 감리위원회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문기구 성격의 감리위원들이 본인 명단과 이력이 낱알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참여연대의 입장에 반하는 주장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본인의 발언이 참여연대 시각에 거슬릴 경우 참여연대의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인데...

금융위가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감리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달리 자문기구여서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참여연대의 이런 주장에 대해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할 것이다.

16일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최로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도 열렸다. 이 자리는 현대차그룹이 3월 28일 현대모비스를 인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을 현대글로벌비스와 합병하는 '출자구조 재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대거 참여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토론회에 없었다. '그들만의 리그'로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한 셈이었다.

참여연대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시민단체다. 그런데 참여연대 출신들이 권력의 요직에 포진하면서 이제는 참여연대 스스로 감시와 비판을 넘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기식 낙마에서 보여준 것처럼, 참여연대는 그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겠다는 참여연대의 '참여 범위와 수위'가 과도하다면, 그리고 참여연대 스스로가 권력이 된다면 이 참여연대는 누가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KDB산업銀, 中공상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 KDB산업은행은 16일 중국공상은행(ICBC)과 2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도 내에서 끌어낼 수 있는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Committed Credit Line) 방식이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왼쪽부터) KDB산업은행 조소현 부행장, 중국공상은행 후하오(Hu Hao, 胡浩) 부행장. /산업은행



우리은행, '우리 투게더 고객감사 이벤트' 경품 증정식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실시한 위비 여자 농구단의 6시즌 연속 통상 우승과 V10 달성을 기념해 '우리 투게더 고객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고객은 무선 청소기 등 경품과 위비농구단이 고객의 성공을 기원하며 농구단의 열정과 우승 기운을 담아 준비한 우승 모자, 친필 사인 기념 티셔츠, 사인볼을 직접 전달 받았다. /우리은행

데일리금융, 임승원 대표이사 선임

신승현·임승원 각자대표 체제



데일리금융그룹은 16일 임승원 대표(사진)를 추가 선임해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대외협력과 기업공개(IPO)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그룹 계열사 간 업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기존 신승현 대표는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 자회사 관리, 투자유치 등 사업운영에 집중하며, 향후 성장을 위한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 대표는 현 옐로모바일 부사장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및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를 거쳐 한국IR협회의 상근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데일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재정 경제부와 한국거래소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인사 영입을 통해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시장 내 입지를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금융그룹은 2015년 2월에 설립된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이다.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로보어드바이저, 금융 플랫폼, 암호화폐 등을 핵심 사업부문으로 두고 있으며, 데일리인텔리전스 및 쿼터백, 코인원, 브로콜리, 뉴지스타, 디레몬 등 15개 회사가 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i@

보험업계 二重苦



기지수준
이봉준
(파이낸스&마켓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환희에 젖었던 보험업계가 올 들어 높은 손해율과 낮은 실적으로 울상이다. 연초 계절적 영향으로 주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모두 악화했고 전년 동기 반영된 일회성 요인 등으로 올 1분기 보험사 실적은 기저효과를 보였다.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곤 1분기 예상을 밑도는 실적으로 올해 순이익 역시 저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선데 달진격으로 보험사들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KS)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에 따른 박차를 가하는 등 탄탄한 재무건전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대형

사와 달리 중소형 보험사는 새 회계기준 등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으로 현저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험개발원이나 중소형 보험사와 새 회계제도 도입을 대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보험분야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고질병인 불완전 판매비율 등 개선을 위해 일부 부적절한 보험사 상품의 경우 판매중지까지 검토해 소비자 신뢰저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경우 보험사 영업정지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적악화와 자본확충 등이중(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업계는 이 같은 당국발(發) 발언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를 먹고 사는 보험사 입장에서 당국의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에 언급되는 것 만으로도 신뢰도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소비자 만족도 제고는 보험사들이 우선적으로 힘쓰는 분야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인 경제전문기관의 보고가 잇따른다. 금리인상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으로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보험사 경영방안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0년간의 저금리 기조 속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보험사들로선 금리인상에 따른 투자처 발굴이 호재로 작용한다. 올해 실적 악화로 수익성 저하를 호소하는 보험사들은 주어진 환경에 어려움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수익성 제고 방안을 다방면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bj35sea@

인사

- ◆ 기획재정부 ◇ 부이사관 승진 △ 정책조정총괄과장 강기룡 △ 재정전략과장 장정진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원장 김응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 395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 0052호

- ◆ 한국수출입은행 △ 전무이사 겸 수석부행장 강승중
- ◆ 동의대 △ 산학협력단장 겸 기술이전센터 소장 겸 LINC+사업단장 이임건 △ 산학협력단 부단장 겸 LINC+사업단 부단장 서진석 △ CT융복합연구소장 김진덕
- ◆ 데일리금융그룹 △ 대표이사 임승원
- ◆ 경희사이버대학교 △ 사무처장 조병춘

부음

- ▲ 김난순 씨 별세, 박용진 전 KBO 경기감독관 씨 부인상, 박준은·예안 모친상=15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 17일 오전 9시 20분, 02-923-4442.
- ▲ 문동식씨 별세, 문성필(한국투자증권 전

무)씨 부친상=16일 오전 8시, 미국 펜실베이니아 무어앤드스니어 장례식장(Moore & Snear Funeral Home, Conshohocken, PA, USA), 발인 18일 오전 10시(현지 시간), 02-3276-5933.

▲ 이병윤 씨 별세, 이석기·홍기(우석대학교 과학기술대학장)·혜진(재 브라질)·순기(재미 치과의사)씨 부친상, 신중현(온게임엔터테인먼트 대표)씨 장인상=15일 오후 8시, 전주예수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9일 오전 9시 전주제일교회, 010-4651-1444.

▲ 최강순씨 별세, 이승배(광남일보 전무)씨 장모상=15일 오후 4시, 전남 나주시 이창동 영산포제일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장지 나주시 영산포 선영, 061-334-1444.



우리카드, 다문화가정 지원 맞손 우리카드가 한·베(한국·베트남) 가족 모임과 광화문 우리카드 본사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우리카드는 한·베 가족 모임 제휴카드를 출시해 이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카드 이용액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카드



롯데손보, 남산공원 돌보미 행사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15일 샤프트봉사단을 포함한 임직원 65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산 돌보미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산 돌보미 행사는 시민의 휴식과 여가 공간인 남산 공원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가꾸고 임직원의 환경의식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롯데손보가 서울시 중부공원 녹지사업소와 함께 진행하는 환경봉사활동이다. /롯데손보

대입안도 원전처럼 설문조사로... 인기투표 vs 국민소통

(현 중3)

(400명 시민참여단)

국민참여형 공론화 방식 정해져 학생·교사·대학이 시나리오 작성 “중립적 공론화에 최선을 다할 것”

현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이 정해졌다.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고교 교사, 대학 등을 포함한 국민이 참여해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짜고,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를 바탕으로 만 19세 이상 40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이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여 최종 공론 결과를 확정한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공론화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추진 방식과 절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대입 개편 공론화 과정 가운데 6월~7월 진행되는 ▲공론화 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대입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는 5월까지 진행되는 온-오프



대입제도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개소했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 내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인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범위를 설정해 공론화위에 넘긴다. 공론화위가 7월 공론 결과를 대입개편특위에 보내면 대입개편특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교육부에 전

〈공론화 추진방안의 공론화 절차 및 일정〉



공론화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

달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6월부터 진행되는 공론화의제 선정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논의를 통해 공론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모형)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고 보완해 최종안을 정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한다.

최종 시나리오가 정해지면 이후 7월까지 이에 대한 권역별(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 4곳) 대국민토론회와 TV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등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미래세대 토론회'가 별도로 바마련된다. 이들의 의견은 최종보고서에도 담긴다.

토론회 등 국민적 숙의과정을 거친 뒤에는 40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대입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에는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회), 2차 숙의(종합 토론회) 등 체계적인 숙의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되는 숙의 자료는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검증은 거치고, 국민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동영상자료도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공론화위는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갖고 위원장이 소집하는 수시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사·숙의·소통 등 3개 분과를 만들었고, 국민 소통을 전담하는 대변인으로 한동섭 위원을 선출했다.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공론화를 계기로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오늘 추진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추진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건국대 개교 72주년 기념식이 지난 15일 오전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건국대학교

건국대 개교 72주년... ‘변화·혁신’ 다짐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는 학원창립 87주년·개교 72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지난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교수와 학생, 동문, 직원, 학교법인 산하기관 임직원, 내외빈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참석자들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유자는 이사장의 기념사, 민상기 총장의 축사, 맹원재 총동문회장의 축사에 이어 근속상, 학술·교육·연구상 시상, 모범상과 학생 선행상·봉사상 수여 등으로 이어졌다.

유자는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학원창립 72주년의 의미와 각종 법인사업체의 경영현황을 소개한 뒤 “우리가 미래를

절저히 대비하고 계획한다면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항상 먼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를 갖추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상허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경영의 나침반으로 삼아 창학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상기 총장은 축사에서 “오늘은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이며 교육자의 삶을 살아오신 상허 유석창 박사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미래의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다짐의 자리”라며 “취임 이래 쉽 없이 달려온 지난 전반기 시기의 평가와 함께 후반기에는 더 큰 도약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상명학원 설립 81주년 기념식 개최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16일 오전 11시 ‘상명학원 설립 81주년 기념식’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캠퍼스 문화예술관 대강홀에서 개최했다.

학원 설립 81주년, 개교 53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이준방 이사장과 백웅기 총장, 김종희 행정대외부총장, 우제완 서울캠퍼스 교학부총장, 김재현 2캠퍼스(천안)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전 교원과 직원, 내·외빈 등

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상명학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장기근속 교원과 직원 64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준방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과 연구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념식에 앞서 스승의 날을 기념해 총학생회 학생들이 스승에게 꽃을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한용수 기자

‘창업인재 투자’...대학창업펀드 230억 조성

(6곳 선정)

정부 75%·대학 등 민간 25% 출자 창업인재 초기 창업자금 적극 지원

대학생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30억의 창업펀드가 조성된다.

교육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18년 대학창업펀드 선정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대학창업펀드는 정부가 75%, 대학과 동문 등 민간이 25%를 출자해 대학생 창업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기존 민·관 창업펀드가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일반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난해 첫 추진된 펀드에는 고려대와 서울대, 연세대,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등 총 5개 조합을 결성해, 정부가 120억 원을, 대학이 68억5천만 원을 투자해 총 188억5000만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

다. 조합 결성 이후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8개의 대학창업기업에 총 20억 원을 투자했다.

올해 선정된 조합은 부산대기술지주, 서울대기술지주, 포항공대기술지주, 한양대기술지주 등 대학 기술지주 4곳과 미래과학기술지주, 부산지역·대경지역연합기술지주 등 민간 기술지주 2곳 등 6곳이다.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에는 부산지역 16개 대학과 부산테크노파크,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에는 대구·경북 지역 11개 대학과 경북·대구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

이들 6개 조합은 조합 결성 절차를 거쳐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향후 최대 10년 간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올해 결성된 펀드 규모는 정부 투자가 작년보다 30억 원 증액된 150억 원으로

늘었고 대학 등 민간 투자가 80억원 등 등 당초 계획(200억)보다 확대된 230억원이다. 올해는 신규 기술지주회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술지주회사에 100억원, 지난해 선정됐던 기술지주에 50억원을 배정해 선정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대학 창업 인재들이 초기 창업 자금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정된 조합이 창업 동아리,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적극 투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기준 대학의 학생창업기업 수는 1191개로, 총 매출액은 143억5500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창업기업 수와 매출액이 각각 38.3%, 72.7% 증가했다. /한용수 기자

대학생이 취업하고 싶은 산업, ‘서비스업’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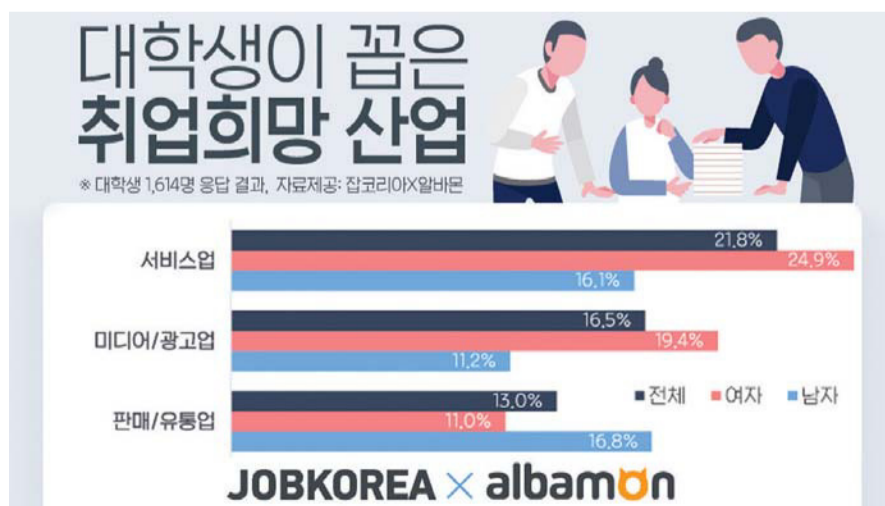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산업 1위에 ‘서비스업’이 뽑혔다. 다만 전공 계열에 따라 희망 산업은 달랐다.

16일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대학생 1964명에게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 82.2%가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 희망 산업이 있다는 응답 비중은 이공계열 8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체능계열(83.2%), 자연계열(82.9%), 경상계열(82.1%) 순이었다.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산업은 서비스업(21.8%)이 뽑혔다. 미디어·광고업(16.5%), 판매·유통업(13.0%)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희망 비중이 낮았던 산업은 건설업(2.3%)이었다.

전공에 따라 취업 희망 산업은 차이를 보였다. 인문계열과 사회과학계열 대학생은 서비스업(각 33.1%, 32.2%)을 취업



희망 1순위 산업으로 뽑혔다. 반면 경상계열 대학생은 판매·유통업(25.4%)을, 이공계열은 제조·생산·화학업(31.5%)을, 예체능계열은 문화·예술·디자인업(28.6%)을, 자연계열과 기타계열은 의료·제약업을 가장 취업하고 싶은 산업이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제조·생산·화학업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판매·유통업, 서비스업 순으로 선호했다. 여학생은 서비스업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미디어·광고업이 그 뒤를 이었다. /한용수 기자

통일로 가는 길목 ...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2시간대로 가까워졌습니다

주말 예약 99% (2주전 예약시)

595만원

등기제 분양



하늘이 내린 천혜의 비경이 숨쉬는 곳
통일전망대·화진포·송지호와 금강산 비경을 간직한 곳
하루를 머물러도 안락함을 느낄수 있는 리조트로 초대합니다.

※ 고성 실제 전경입니다.

*분양 하계 휴양소, 연수 문의

02)541-0113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아시아 경제 신문 리조트 부문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동해안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오션리조트는 국내 바닷가 리조트 가운데 바다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해 비치리조트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변에서 해수욕과 바다낚시, 등산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수 있고 힐링 휴가를 즐길수 있는 동해안 휴양지로 거품을 뺀 가격에 분양중이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기제 분양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패밀리형 53㎡ 595만원, 스위트형 99㎡를 795만원, 로얄스위트형 165㎡ 1,395 만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 타업체와 비교해 실속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품을 완전히 제거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착순 마감한다. 더구나 선착순 30

명에게는 무료숙박권 20매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증정 한다니 관심 가질만 하다.
또한 제주도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하여 제주도내 제휴된 골프장 5곳을 준회원 자격으로 사용가능하고 필리핀 세부 일본 니가타 말레이시아에 골프와 리조트를 회원대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오션 리조트는 100%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제로만 분양을한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직영 리조트인 동해 리조트와 제주 리조트 외에도 도고나주 지리산 경주 설악 덕구 등 전국 8개 지역에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다. 금강산오션리조트 정회원이 되면 가입과 즉시 가족 카드 5매가 발급되어 가족 친지들이 함께 연간 30일을 정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 가입시에는 무기명 카드가 제공되어 사원 후생 복지로

사용가능 하다. 위치가 동해안 고성 바닷가에 위치하여 여름 휴가시에 인기가 좋아 창을 열고 나서면 바닷가 백사장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분양 가격의 반값으로 동해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별장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입금 선착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우선 배정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다.

문의: 02)541-0113 신청금 50만원
국민은행 469301-01-127-122 (주) 미봉

금강산오션리조트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사용과 관광진흥법상 적합한 등기제로 분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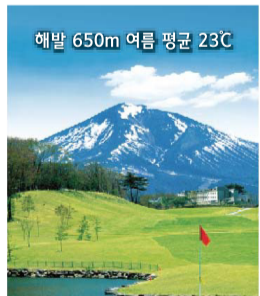
제주리조트

해외 골프 특가

태국 치앙라이 답사

※ 실제 전경입니다.

1. 일본 니가타 청광아이즈
9일 149만원 ~



해발 650m 여름 평균 23C

포함사항
항공료 (택스), 왕복 픽업비, 여행자보험
숙박 / 그린피 / 조식, 석식 / 전동카드

2. 일본 마다라오 탕그램
4일 119만원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그린피, 카트비, 송영차량
호텔(2인1실), 식사, 입욕료, 락카비

3. 일본 북해도 루스츠
4일 119만원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 (2인1실), 조식
그린피, 카트비, 송영차량, 여행자보험

4. 일본 고마츠 가타야마츠
4일 139만원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 2인1실, 조식
그린피, 전동카드, 송영차량, 여행자보험

5. 일본 아와지 스프링스
4일 99만원 ~

포함사항
왕복 항공료, 호텔 2인1실, 조/석식
그린피 및 카트비, 송영비, 여행자보험

6. 몽골 울란바토르 관광/골프
5일 179만원 ~

포함사항
항공료, 식사, 숙소 2인 1실, 전용차량
그린피, 카트 캐디, 입장료, 관광, 보험

7. 사이판 라오라오베이
3박 5일 85만원 ~

포함사항
왕복 항공료, 호텔 (2인1실), 조식
그린피(노캐디), 전동 카트, 여행자보험

8. 중국 위해 호당가C.C
3일 599,000원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숙박 (2인 1실), 조식, 석식
그린피, 카트비, 여행자보험



치앙마이 보다 시원한!
은퇴 이민의 천국 치앙라이

- 2018. 07. 08 - 07. 12 (선착순 30명)
- 비용 : 139만원 (왕복항공료, 골프, 호텔 2인1실 차량비, 가이드비 포함)
- 해발 450m 고원 휴양 도시, 연평균 22C 치앙라이
- 골프 · 휴양 · 의료 서비스 · 은퇴 이민 천국
- 동 · 하계 Long Stay 체험
- 태국 관광청 지원, 오리엔테이션 (부동산, 이민권, 의료, 호텔, 레지던스 관련)

ILtour 02-541-4242



Poshill 명품 타운 하우스

“ 남한강과 용문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양평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하는 사업지 ”

시공사, 포스홈 문의 : 070-5133-6570

제8회 대한민국발레축제 31일 팡파르

어렵고 지루한 발레 No!... 대중에 다가온 '모두의 축제'

기자간담회

스타무용수·안무가 총 출동
10개 단체서 10개 작품 공연

김용걸 신작 'The type B' 선봬
국립·유니버설 발레단도 무대위



대한민국발레축제 포스터. /예술의전당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기자간담회에서 박인자 조직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가 무용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발레는 지루하고 어렵다'라는 말은 옛말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제8회 대한민국발레축제'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16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파르트홀에서는 '제8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박인자 조직위원장 겸 예술감독을 비롯해 기획에 참여한 안무가 윤전일, 임혜경, 최진수, 김세연, 김용걸, 정형일, 김지안, 김성민이 참석했다.

이번 축제에는 총 10개의 단체가 참여해 10개의 작품이 공연된다. 클래식 발레부터 독창적인 모던 발레까지, 스타 무용수와 안무가들이 총출동해 기대감을 높인다.

이날 박인자 조직위원장 겸 예술감독은 "대한민국 발레축제"를 통해 발레가 대중 속에 깊이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발레 문화가 많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아외공연을 많이 하려고 한다. 지나치다가 호기심이 생겨 발레에 입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도록, 보다 더 대중성을 펼 수 있게 무대를 꾸미려 한다"고 축제 방향에 대해 입을 열

었다. 대한민국 발레의 성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한 단계 더욱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공연-김용걸·김세연

김용걸은 올해의 첫 신작 'The type B'를 선보인다. '본연의 나'를 주제로 다양한 생각들을 무대 위에 풀어낸다.

김용걸은 "가장 진심을 다해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랜 시간 고민했고, 발레 움직임의 테크닉도 타 무용수의 인생도 아닌, 결국 '자기 자신'을 주제로 선정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김세연은 올해 초 스페인 국립무용단과 마드리드에서 초연하여 극찬을 받은 'Triple Bach'를 재구성해 무대에 올린다. 하얀 도화지에 담긋 색을 칠하듯, 무용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펼치며 원 없이 춤출 수 있는 네오 클래식 작품으로, 군더더기 없는 클래식 동작부터

화려한 파르티링까지, 다양한 구성이 명쾌한 바흐의 음악 위에 그려진다.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기획공연은 5월 31일과 6월 1일, CJ 토월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국내 대표 발레단

국내 대표 발레단인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은 각각 '안나 카레니나'와 '발레 춘향'을 무대에 올린다.

지난해 11월,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 공연으로 '안나 카레니나' 공연을 올린 바 있는 국립발레단은 원작의 비극적인 운명과 사랑 이야기를 섬세하게 표현한다. 초연보다 한층 더 깊어진 풍부한 연기를 선보일 전망이다.

유니버설발레단의 '발레 춘향'은 1986년 탄생한 '심청'에 이은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작이자 두 번째 창작 발레이다.

유니버설발레단장은 "한국 고전에 차

이코프스키의 곡을 입혀서 만들었다. '한편 고전은 영원한 고전'임을 보여줄 것이다. 강단있는 여성상을 발레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예술감독 유병현과 의상디자이너 이정우, 새로운 영상디자이너로 한층 더 세련되진 무대를 선보이며, 한 쪽의 동양화처럼 매혹적인 장면들을 연출한다. '발레 춘향'은 6월 9일, 10일 CJ 토월극장에서, '안나 카레니나'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다.

◆남녀 안무가가 한 무대에!

올해 공모로 선정된 작품들 모두 남녀 안무가의 조합이 특징이다. 차진엽-정형일, 김지안-김성민, 임혜경-윤전일의 안무작이 한 무대에 오른다.

안데르센 원작 동화를 재해석한 서울발레시어터의 '빨간구두-영원의 춤'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안무감독으

로 주목받았던 안무가 차진엽, 음악감독 최우정, 그리고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27인조)가 협업한다.

2014년 이후, 오랜만에 발레축제를 찾은 정형일은 300년 발레 역사에 일곱 번째 포지션을 제시하며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정형일은 "움직임을 강조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무대라 내용은 없다. 다만, 인간이 몸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무한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예술가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고뇌를 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지안 발레단은 '윤이상의 귀향'을 선보인다. 천재적 작곡가로서의 윤이상의 모습부터 인간 윤이상의 면면들까지 그의 명곡 위에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그밖에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은 'Combination 2'를, 임혜경은 '이야기가 있는 발레'를, 윤전일 안무가는 '사랑에 미치다' 무대로 관객을 만난다.

다양한 부대행사 또한 발레축제의 큰 자랑거리다. 매년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발레 체험 클래스가 레벨을 세분화한 발레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된다. 최근 KBS 백조클럽의 예술감독으로도 활약한 프리마 발레리나 김주원이 성인 고급 클래스를, 안무가로도 발레축제에 참가하는 전 국립발레단 주역무용수 윤전일이 성인 초중급 클래스를 맡는다. 6월 2일과 6일에는 예술의전당 곳곳에서 발레 무용수와 사진을 찍는 이벤트도 열린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여행욕구 자극... 영상미 넘치는 '영화 속 도시'

- 윈더스트릭**
흑과 백·색채 공존 뉴욕 그려
-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포도 익는 부르고뉴 세계절 담아
- 트립 투 스페인**
감성 가득 스페인 소도시에 집중

놀라운 비밀을 찾아 떠나는 환상적인 여행을 그린 영화다.

'개골'로 전 세계 신드롬을 일으킨 토드 헤인즈 감독과 할리우드 최고의 제작진이 합세한, 그야말로 매혹적인 작품. 특히 과거의 뉴욕을 완벽하게 재현해내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1920년대 로즈의 이야기는 흑백의 무성 영화로, 우연한 사고로 청각을 잃은 1970년대 벤의 이야기는 컬러로 그려내면서 흑과 백, 색채가 공존하는 뉴욕을 보여준다.

줄리안 무어, 미셸 윌리엄스와 더불어 천재 아역배우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밀리센트 시몬스와 오크스 페글리가 놀라

운 연기를 펼쳤으며, 감성 아트버스터로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개봉한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은 삼 남매가 아버지의 유산으로 남겨진 부르고뉴 와이너리에서 다 함께 최상의 와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힐링 드라마다. 포도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부르고뉴의 세계절을 아름답게 담아내 프랑스판 '리틀 포레스트'로 불리며 주목 받았다. 더불어 프랑스의 최상급 와인을 제작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담겨 있어 특별한 일탈을 꿈꾸는 관객들의 여행 심리를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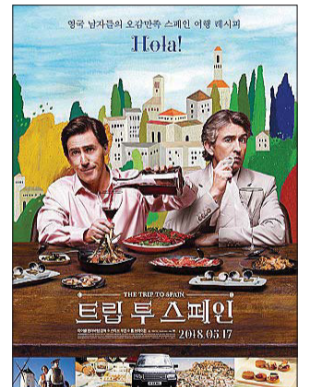
영국 대표 배우 스티브 쿨과 톱 브라이든이 스페인 전역을 여행하며 음식과



윈더스트릭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트립 투 스페인

/네이버 영화

인생, 사랑에 대한 유쾌한 수다를 펼치는 신개념 인텔리전트 미식여행기 '트립 투 스페인'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해당 작품은 스페인 여행 가이드 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성 가득한 스페인의 구석구석을 보여준다. 특히 맛있는 음식과 절경이 일품인 항구 도시

산탄데르의 역사가 담긴 건축물, 예술, 문학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두 남자의 유쾌한 대화 속에 담아냈다. 국내 관객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에 집중해 색다른 스페인 여행을 원하는 관객들에게 최고의 여행 팁을 선사할 예정이다. 17일 개봉. /신원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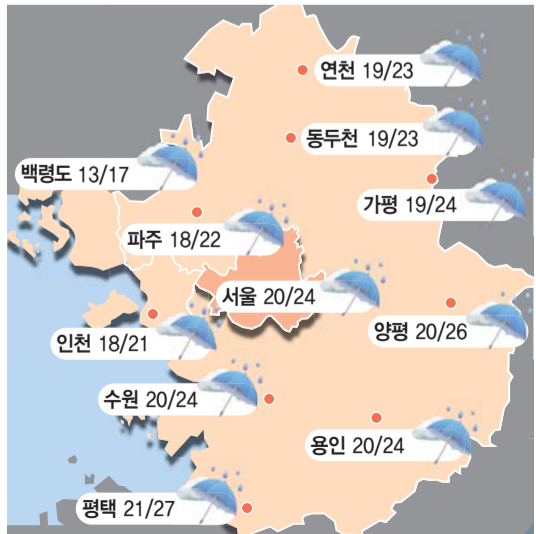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2 | 해질 / 19:36

5월 17일
음력: 4월 3일

수도권 날씨
24~2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스포츠 한줄 News

- ▲ 박지성이 배성재(사진) 아나운서와 함께 2018 러시아 월드컵 SBS 해설위원으로 나서는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대표팀 선수로 손흥민을 꼽았다.
- ▲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는 6월 18일 오후 9시에 열리는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첫 경기 스웨덴전에서 필 선수 23명을 공개했다.
- ▲ 프로축구 전북 현대를 상대로 킥오프 1분 만에 벼락골을 터뜨린 김승대(포항)가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13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 ▲ 한국 여자축구 '간판' 지소연(첼시 레이디스)이 브리스틀 시티와의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제 결승골을 어시스트 하는 등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 ▲ 프로농구 KBL 제10대 총재로 선임된 이정대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이 '농구 인기 부활'을 기치로 내걸었다.
- ▲ 여자프로배구 KGC인삼공사가 레프트 최은지와 연봉 8000만원에 FA계약을 체결했다.
- ▲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와 바르셀로나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다면 FC바르셀로나에는 끔찍한 일이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넥슨 어른들 위한 야심작 '카이지' 내달 출시 05



Life

[금융] 두산그룹 본격 4세 경영 실적 향상 '성공적' 06



고달픈 서울살이... 출퇴근에 하루 평균 100분 소요

서울시에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시간 36분가량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이용해 전국 통행량 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연구팀이 2016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통행량과 출퇴근 통행시간 등을 파악한 결과, 서울시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96.4분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됐다.

출근에 41.8분, 퇴근에 54.6분 걸려 출근보다는 퇴근길이 더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시간은 오전 6~10시, 퇴근 시간은 오후 5시~10시로 놓고 연구팀은 시간대별 통행량 분포를 분석했다.

서울시와 인접한 인천과 경기도도 각각 92.0분, 91.7분으로 나타나 출퇴근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전라남

서울·부산·대구·인천 지속적 혼잡구간 증가

도로 출근에 28.6분, 퇴근에는 38.0분 등 총 66.6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로 일평균 출근 통행량은 9만7054건(12.40%)이었다.

뒤이어 성남시(9만6515건, 12.32%), 부천시(7만8638건, 10.04%), 남양주시(6만3523건, 8.11%) 등이었다.

2016년 전국의 통행량은 8705만1000건으로 2010년 7886만8000건 대비 10.38% 증가했고, 총 통행 거리는 12억3900만인·km로 2010년 12억2200만인·km 대비 1.38% 늘었다.

통행량 중에서도 승용차 통행량은 20.5% 증가한 4572만4000대로 집계됐다. 전체에 비해 승용차 통행량이 크게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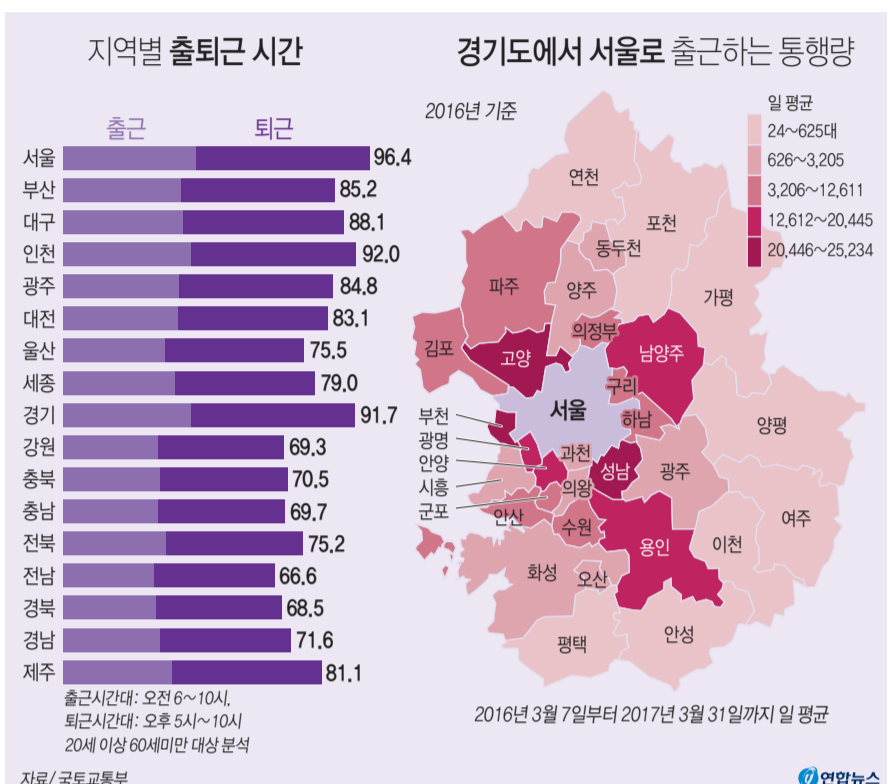
가한 것은 '나홀로' 차량 비율이 61.3%에서 82.5%로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은 지속적으로 혼잡구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잡구간은 24시간 중 1시간이라도 혼잡기준속도 이하로 떨어진 도로구간이다. 이때 혼잡기준속도는 고속도로는 40km/h, 도시고속도로는 30km/h, 특별·광역시도는 15km/h 이하이다.

서울의 경우 2016년 혼잡구간 비율이 2014년에 비해 3.31%p 증가했다. 부산과 인천은 각 10.36%로 2014년보다 1.40%p 똑같이 늘었고, 대구는 10.26%로 0.92%p 증가했다.

최근 3년(2014~2016년)간 서울의 승용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3.7%(8만7602대)였다. 경기도에서는 43만4776대 불어나 승용차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어른들의 목공 놀이터 환경의 '감성공화국' "정서 가르치는 교육장 만들고파"

인터뷰 '유씨네 공방' 유성기 목수

목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찾아 온 손님에게 드립커피를 건넨다. 소나무 수십톤이 쌓인 제재소 한켠에는 공방이 있고, 시골벽적 사람 냄새도 난다. 직업도 사연도 제각각, 머무는 시간도 한 시간 아니면 새벽 3시다. 이렇게 사귀어 지인만 1000여명. 이따금 찾아와 나무를 만지며 논다. 이곳 대표인 유성기(53) 목수는 제재소 내 공방을 '공간'으로 고쳐 불렀다. 어른들의 놀이터이자 소통의 공간, 경북 김제시 '유씨네 공방'을 지난 6일 찾았다.

2대째 제재소만 운영하던 유 목수는 불혹이 된 2004년 봄, '문화충격'을 받아 목공을 배웠다. 어느날 나무를 사러 온 치과의사가 병원 의자와 책상을 만드는 모습에 매료됐다. 이후 1970년대를 다룬 드라마 '자이언트' 촬영 장소로 유명해진 제재소는 지금도 변치않는 흡인력을 자랑한다. 이곳은 작업 공간에 목마른 예술가와, 나무가 주는 감성에 젖고픈 이들이 교감하는 구심점이다.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을 주의 깊게 보면서 즐거워해요. 그 시선을 저도 의식하지요. 결국 나중에는 뭔가를 함께 만들게 됩니다."

하루에 적게는 10명, 많으면 50명이 유씨네 공방을 찾는다. 그 중에는 유명 배우와 아이들도 있다. 다시 보고 싶은

제재소 운영하다 공방까지 발뺌허 많은 사람들이 교감하는 '구심점'

사람은 식사에 초대한다. "그럼 혼자 오나오. 친구가 오죠. 누구겠어요. 예술 가입니다."

작은 배품이 이어지면서, 이곳은 어른들의 놀이터이자 유 목수의 배움터가 됐다. "어떤 분이 '나는 조각가인데 여기서 작업해도 되겠습니까?' 합니다. 저는 예술가에게 '노(No)'를 안해요. 그 분들이 오시면 다양한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차 한잔, 밥 한 끼가 아주 적은 수업료예요. 대신 저는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얻잖아요."

서울에선 전시 공간에 엄격한 작가들도, 이곳에선 자기 작품을 맘껏 풀어 놓는다. 사람이 좋아서다.

한때 자신의 욕심으로 슬픔을 배운 그는, 배푸는 삶을 통해 얻는 점이 많아 졌다고 한다. 그런 탓인지 유 목수는 재료비 외에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평소 떠오른 아이디어를 나눠주느라 본인 작품도 얼마 없다고 했다. 최근 유명해진 그의 작품은 드라마 '리턴'에서 주인공 최자혜(고현정·박진희)가 사용한 책상이다. "아이디어를 얻고다시 찾아 온 열 사람이 '전에 작품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니, 열 개의 다른 작품을 볼 수 있는겁니다. 처음 생각한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타인의 지식을 통해 얻게 된 셈이죠."

다양한 사람이 모여드는 공방답게, 이곳의 상표 역시 직업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하나의 'o'와 두 개의 's'를 두고 수의사는 동물을, 음악가는 음표를, 시인은 산과 달이 있는 자연의 모습을 말한다. 그가 김제에 만들고픈 '감성 공화국'에 어울리는 국기다.

확자지컬하던 저녁이 끝나고 마지막 술잔을 기울인 새벽. 유 목수는 동화책의 결말을 읽듯 이야기했다. "이곳을 '정서를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김제(전북)=이범중 기자 joker@



유성기 목수



사고 잦은 퇴계로~왕십리 가변차로 없앤다

20일 일부 구간 폐지, 차로 재정비

서울시는 사고가 잦은 퇴계로와 왕십리로 일부 구간의 가변차로를 폐지하고 차로를 재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 구간은 한양공고 앞에서 왕십리역 간 2.2km 구간(퇴계로 1.08km, 왕십리로 1.12km)이다. 오는 20일 착공에 들어가 6월 말 준공할 계획이다.

퇴계로~왕십리 구간의 가변차로는 지난 2003년 청계천 복원 때 출근 시간에 집중되는 도심 방향의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협소한 차로 폭과

가변차로 특성상 노면 표시가 없는 좌회전 신호 구간이 있어 차로 오인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현재 6개 차로 중 폭이 좁은 한양공고 앞~성동고교 교차로를 도심 방향 3개, 외곽 방향 2개로 재편한다. 도로 폭이 충분한 성동고교 교차로~상왕십리역 구간은 도심 방향 3개, 외곽 방향 3개로 조성한다.

차로가 줄어드는 외곽 방향은 버스전용차로를 없애고, 신당역·성동고교 앞·상왕십리역 교차로 등에서 좌회전과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김현정 기자 hjk1@

강동구 전력량 절반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2020년까지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강동구에 연료전지 발전소 98.9MW가 들어선다고 16일 밝혔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결합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다. 가정용 보일러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등에 사용된다.

연료전지 98.9MW는 연간 779G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지난해 기준 강동구 전력사용량의 52%에 해당하는 규모다. 발전과정에서 생산되는 열은 연간 40

만Gcal다.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면 5만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사업비의 20% 이상을 시민 펀드로 조달해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 참여형 발전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를 2020년까지 300MW 보급하고, 2022년까지 태양광도 1GW를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조성해 에너지자립률을 13%까지 높일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SK텔레콤 고객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안심T로밍

전화를 걸 때도 받을 때도
[매일 음성통화 3분 무료]
매일 3분 무료로 30분까지 최대 1만원만 부과

데이터가 필요할 땐 부담 없도록
[데이터 일정한 5천원]
일 8.8MB 사용 시까지 (이후 24시간 동안 과금 없이 속도제한 이용)

해외 로밍은 ON!
요금 부담은 OFF!



*음성통화 30분(무료 3분 포함) 이후부터는 초단위 과금, 데이터는 일일 8.8MB 사용 시까지 5천원만 부과되며 이후 24시간 동안 과금 없이 200Kbps 속도 이하로 계속 이용가능
*별도 가입 필요 없음 | 별도 로밍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 참조